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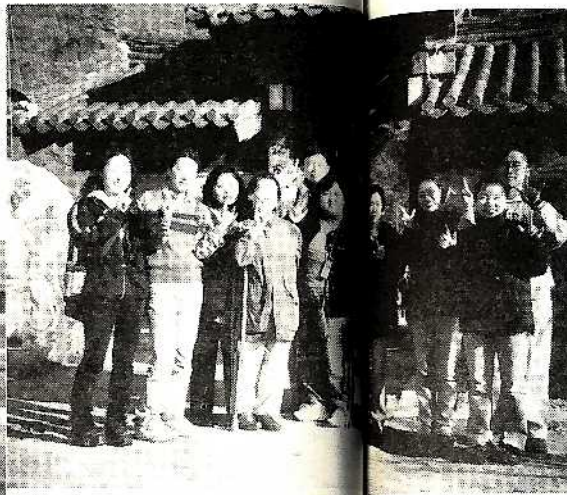
〈사진으로 본 캠프〉

장애여성 가족문화 캠프



캠프장을 떠나기 전에

2000년 제2기 장애여성DPI이카데미
“장애여성, 가족문화캠프”
 일시: 2000년 11월 18일(토) ~ 19일(일) 장소: 현대성우리조트
 주관: 서울1322X 장애인회 후원: 서울특별시



캠프에서 수고한 운영위원과 자원활동가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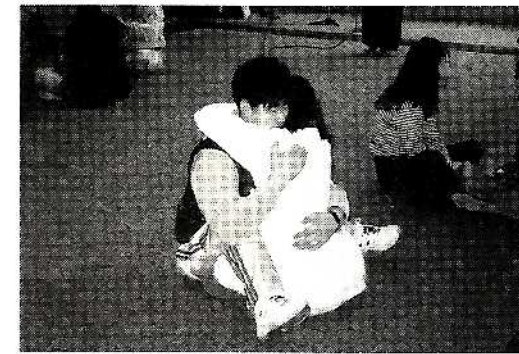
아빠, 엄마와 참여한 장애여성 가족문화 캠프



장애여성, 서로 맞잡은 우리



기수련 프로그램



다시 확인한 부부사랑



강원도 민속박물관 앞에서

IV 장애여성 대안찾기



장애여성과 조력자 / 김진옥

<별칭>
서울DPI 제2기 장애여성 아카데미
초청강연 "장애여성과 조력자" 결과보고 / 백은영

장애청소년의 리더십 개발과 비전 / 박지주

나는 하나뿐인 존재, 너 또한 그런 존재,
그렇다면 우리를 함부로 할 수 없죠

장애여성과 조력자

김진옥 / 전 한빛장애인이동봉사대 기획위원장

김진옥 저는 나름대로 사회봉사를 하기 위해 한빛장애인이동봉사대 기획위원장과 장애우권익연구소 '빛장을 여는 사람들' 운영위원 등을 했어요. 도움이 되려고 활동을 했는데 중증장애인이란 오�히려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면서도 느낀 점이 참 많았는데 저의 유일한 자원봉사자가 제 남편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에피소드 등을 이야기하는 것이 재미있을 것 같아서 특별히 원고를 준비하지 않았어요. 이 자리에 자원봉사를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여러분 중, 한 분에게 물어보고 싶어요. 자원봉사에 대한 동기부여를 어디서 얻었는지요?

자원봉사자 제기가 사회봉사 명령을 받아 여기 복지관에 오게 되었는데요. 봉사활동을 하면서 제가 느낀 게 한 가지 있었어요. 살아가면서 전엔 나보다 못한 사람이 장애인이라고 생각했는데 몸만 불편한 것이지 열등하거나 마음이 불편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김진옥 나와 똑같은 사람이구나, 똑같은 욕구가 있고 똑같은 감성, 지성을 가지는 것이 제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관계라고 생각해요. 또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같이 벽을 갖고 있거든요. '나를 어떻게 이해해? 병이나 특징을 알 수 없을 뿐더러 오랫동안 장애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을 니네가 어떻게 이해하겠냐?'란 시선으로 벽을 쌓고 지내거든요. 굉장히 좋지 않은 것 같아요. 벽이란 게 사람과 사람 사이를 멀게 만들고 마음을 열지 못하게 하거든요. 그런 것을 없애주는 역할을 자원봉사자가 해야 할 것 같아요. 물론 장애인도 노력해야

겠지만, 제가 왜 동기부여 얘기를 했냐면 동기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비장애인이 장애인을 대할 때 나보다 못한 사람이라 느끼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자원봉사자 제가 볼 때 거리감을 두기 때문인 것 같아요. 우리 같은 사람은 서로 대화하기가 편한데 '아 저 사람은 행동하는 것도 불편한데 생각도 나보다 짧겠다. 내 생각과 저 사람 생각이 안맞겠다.' 는 생각이 먼저 들어서 가까이 다가가기 어렵고 말 걸기가 두렵게 돼요.

김진옥 사회활동이 제한되어 있으니깐 장애인에 따라 사회성이 결여될 수도 있어요. 비장애인은 나 같은 경우를 보고 사회활동을 못하고 교육도 못 받고 경험도 없고 나와 다르겠구나 생각해요. 경우에 따라 그런 장애인도 있지요. 도움 없이는 나가기 힘들고 그렇기에 악순환이 되풀이돼요. 장애인이라고 학교에서 받아주지 않고 그래서 교육도 받지 못하고, 지식은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 직업도 없고 직업을 가질 자격도 없고 직업이 없으니 경제적 자립이 안 되고 결국 악순환으로 일반인들과 격차가 나게 되죠. 결국 문제해결은 편의시설, 사회자원봉사자, 복지, 이런 요소가 하나 하나가 마련될 때 중증장애인이 한사람의 인간으로 성장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자원봉사의 동기가 시간이 남아서, 혹은 나보다 못한 사람이니까 돕고 마음에 위안을 얻는다는 차원도 있더군요. 이런 것은 감성주의적 생각이예요. 이것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개인적으로야 나 아닌 사람을 위해 시간을 내기가 힘들겠지만, 하지만 보다 유익한 시간 할애를 위해서 동기부터 점검해서 무르익게 하면 좋겠어요. 자원봉사자 한 분 한 분의 행동이 장애인의 삶을 바꿀 수 있어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사는 사회, 악어와 악어새 이야기 아세요? 악어새는 악어의 이빨에 낀 찌꺼기 빼먹고 악어는 이빨이 깨끗해져서 좋고 악어가 빼지 못하는 찌꺼기를 빼줘 시원하고, 서로 도움을 주고 받으며 공존하는, 장애인과 자원봉사자의 관계가 악어새와 악어와의 관계가 아닌가 생각해 봤어요. 그런데 자원봉사를 할 때 자원봉사자들이 기술 한 가지씩 가지고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여기 계신 분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봉사를 하세요?

자원봉사자 원하시는 모든 것 다 해드려요.

김진옥 분담하면 좋겠어요. 반찬담당은 반찬만 목욕담당은 목욕만. 그러기가 힘들까요? 그런 과정은 어떠세요?

자원봉사자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런 일은 못 하시더라고요. 혼자 사시는 분일 경우, 집 청소, 반찬, 목욕 등등 해드려야 할 것이 많아서 그것만 해주고 마는데... 자원봉사자끼

리 분업이 하기가 힘들어요.

김진옥 장단점이 있는 것 같은데 반찬만 하시는 분, 세탁기 돌리시는 분 등으로 분업화 하면 더 능률적일 것 같아요. 제가 처녀때보단 복지가 좋아져서 여러 가지 자원봉사를 받을 기회가 있고 이런 저런 프로그램도 있어서 좋은데….

사실, 장애인은 부모와 가족의 도움만 받아요. 그래서 가족이 부담을 갖는 것 같아 복지관에 자원봉사를 요청하는 연락을 했었어요. 그런데 한 달이 지났는데 연락이 안 되더라구요. 당장 사람이 필요한데 한 달 넘게 기다렸어요. 그쪽 지역에 봉사자가 없어서 연결이 안 된다더군요. 답답하기도 했어요. 한편으로 '자원봉사자 구하는 것도 쉽지 않구나'란 생각을 했어요. 두 달 만에 아가씨 소개를 받아 친구처럼 지냈던 기억이 나네요. 장애인에 비해 봉사자가 훨씬 적어요. 자원봉사 자체도 힘들고, 자원봉사자들이 많이 양성되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해요. 자원봉사자가 적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자원봉사자 젊은 사람이라서 쉼피하게 생각되고 그래서 적극적이지 못했던 것 같아요.

김진옥 자원봉사하는 사람들이 적은 근본적인 이유는 보수가 없다는 거예요. 현실적인 이야기예요. 정말 돈 벌기 힘든 걸 살면서 느끼거든요. 내 시간을 빼서 남 돕기 어려운 일 이잖아요. 일본은 중증장애인이 출산을 하면 두 명 분의 봉사자 수당이 장애인의 이름으로 나온대요. 자원봉사도 하나의 직업화가 되어야 해요. 떳떳하게 수당이 지급되어 자원봉사도 하고 돈도 받는 환경이 되어야 해요.

보수를 꼭 바라고 하라는 것은 아닌데 사실, 내 생계를 접어두고 봉사만 한다는 것은 참 힘든 일이에요. 뉴스에서 보니까 국회의원 식사 한 끼 비용이 150만원 할 때도 있다는데, 이런 것을 아껴 자원봉사자들에게 차라리 보수를 주는 것이 더 현명한 것이 아닐까요? 보수를 준다면 자원봉사자가 더 늘지 않을까요? 자원봉사자도 하나의 기술을 가져야한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과거에 장애인이 외출할 때 차로 오고 가는 것을 돕는 한벗장애인이동봉사대에서 활동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많은 장애인과 봉사자를 만나봤는데 봉사자들이 장애인에 대한 지식이 너무 없더군요. 저는 적극적인 성격이라 제 장애와 제가 필요한 것을 가르쳐 드리기도 하고 잘못하시면 막 뭐라고 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얌전하고 소극적인 성격을 가진 장애인들은 요구를 하지도 못하고 자기표현을 잘 못해요. 여러분은 뇌성마비 증상이 몇 가지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구체적으로 뇌성마비 증세가 300가지가 넘어요. 그거 아는 사람 얼마 없어요. 사실 저도 안지 얼마 안됐지만.

척수장애와 척추장애가 무엇이 다른지 아세요? 척추장애인은 허리 디스크가 있는 사람을 말하고, 척수장애인은 허리에 변형이 온 것을 말해요. 척수장애인은 화장실 느낌이 없고 척추장애인은 화장실 느낌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장애인을 도우려면 장애인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해요. 호흡이 힘든 사람에게 물을 마시게 할 때는 투명유리컵을 사용한다면 얼마나 먹는지 볼 수 있어요. 뇌성마비는 팔이 제 멋대로 난리예요. 식당에서 서빙하는 사람이 제 어깨 위로 음식을 갖고 지나가는데 제 팔이 툭 튀어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화상을 입어 서로 미안하다고 하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 아줌마가 그런 지식이 있었다면 멀리 돌아서 가셨을 텐데. 자원봉사자가 이런 지식쯤은 알고 계셔야 해요. 그래야 기본적으로 도울 수 있잖아요.

자원봉사자와 장애인 간의 관계에 대해 말하고 싶은데요. 돕는다면서 너무 간섭하게 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좀 친해지면 모자라 보이고 그래서 장애인을 지나치게 구속해요. 무뚝뚝한 장애인은 재미도 없고 열 번 만난다 해도 안 친해져요. 사실 장애인도 상대방이 날 위해 봉사하는 시간만큼은 봉사자가 무엇인가 얻을 수 있도록 해줘야 하지 않나 라고 생각해요. 서로 친해지며 유대감을 가져야 하는 것이 상부상조라고 생각해요.

어떤 봉사자는 소아마비로 대학에 수석한 장애인만 머리에 박혀 있어서 장애인은 다 똑똑하다고 생각하며 그렇지 못한 장애인에게 뭐라고 훈계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똑똑하지 못한 장애인이 더 많고 그것이 장애인의 잘못은 아니예요. 보편적으로 장애인도 특수한 계층이 있게 마련이고 똑똑하지 못하다고 또 그 사람보다 못한 것도 아니고, 열심히 안 산 것도 아니고…, 그런 샘플만 가지고 장애인을 야단치면 안 돼요. 그럼 장애인이 기죽어서 못 살아요.

제가 아이를 낳고 장사를 했는데, 아빠가 다 해야 했어요. 아이를 키워줄 사람을 찾아 봤는데 그런 자원봉사자는 없더군요. 한번은 반찬만이라도 해줬으면 해서 젊은 아줌마가 자원봉사자로 왔는데 그때 그 자원봉사자를 잊을 수 없어요. 왜 봉사를 하게 되었느냐고 물었더니 시간도 많고 애도 다 키워냈고 사회를 위해 뭔가 하고 싶어서라고 그러더군요. 그 자원봉사자는 저랑 이야기 좀 하고 아이를 안아보더니 그냥 가더군요. 난 현실적인 도움이 필요했는데 그냥 놀다 간 거예요. 도리어 우리 남편이 커피를 타줬지요. 남편도 있고, 사는 것도 크게 궁상맞지 않으니까 별 도움이 필요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을까요? 구체적으로 도움도 안 주고 그렇게 놀다 가는 봉사자도 있어요.

자원봉사자 일반적으로 봉사 가기 전에 교육을 받아요. 뇌성마비나 시각장애 등 장애인을 이해하는 교육을 받고 가지요. 그 사람은 그런 기본교육이 안 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김진옥 제가 아기 낳을 때는 고모가 도와줬어요. 그런데 고모가 예민해서 내가 자다 움직이고 그러면 그때마다 깨서 “뭘 도와줄까?” 묻더라고요. 처음엔 고맙다고 생각했는데 다음에 잘 때는 제가 움직이지도 못 하겠더라고요. 오히려 제가 신경이 쓰여서 피곤하더라고요. 장애인이 필요해서 요청할 때만 도와주세요. 뭐든지 해주려고 너무 밀접하게 다가가지 말아요. 장애인도 스트레스 받아요. 장애인이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를 들어 물컵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으면 잡기 편하게 손가락 사이에 끼워 스스로 물을 마시게 해준 다던가. 그렇게 도와주세요. 그러면 장애인도 스트레스 없고, 봉사자도 유쾌하게 봉사할 수 있게 되지요.

성서에 미니스터(minister)란 말이 있어요. ‘개척자’란 뜻인데 그것을 자원봉사에 응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원봉사자는 비장애인이 장애인을 바라보는 인식이 바뀌게 하는 개척자라고 생각해요. 저는 중증장애인이지만 어렸을 때부터 사랑을 받고 자랐어요. 장애인이라고 해서 특별히 기죽고 크지 않았어요.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 시집도 그렇고 고모도 그렇고 굉장히 반대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게 비장애인이 장애인을 보는 잘못된 인식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구나 생각했어요. 그것은 나랑 결혼하면 우리 남편이 애도 키워야 하고 돈도 벌어야 하고... 등등 모든 것을 혼자 다 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 반대가 심한 거예요. 그런 인식에 대해 어떻게 말은 못하겠고.

이럴 때 장애여성을 돕는 가사 도우미들이 있다면 장애여성이 자기 목소리를 내는 것이 좀 수월해질 것인데. 사실 장애여성이라고 하면 결혼, 양육, 가정생활, 모두가 힘들다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안 그렇잖아요. 많지는 않지만 이렇게 잘 살아가는 장애여성들도 찾아보면 있어요. 여러분은 결혼 배우자로 장애인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원봉사자 물론 배우자로 생각하기가 쉽진 않겠지요. 장애여성은 결혼이 더 힘들 것 같아요. 주위 인식 때문에도 그렇고.

김진옥 생각이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는 말이 있어요. 장애 입었다고 포기하는 사람이 많아요. 주위 인식 때문에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러한 인식이 바뀌고 우리 장애인도 스스로 노력해서 함께 어우러져 하나의 통합사회가 되면 좋겠어요. 우리 집은 아빠가 아이를 키워요. 하지만 아이가 열이 나서 아프면 아빠는 자고 결국 제가 손등으로 열을 재보고 열이 높아지면 아빠를 깨우거나 하죠. 사실 우리 딸 아이의 옷을 고르고 머리피도 골라 애기 아빠 보고는 입혀 달라고만 하는 건데 나가면 사람들이 우리 딸에게 대번에 그래요 “아빠가 이렇게 이쁘게 입혀 주었니?”

얼마 전에 길거리에서 노점을 한 적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엄마 도와주라, 딸 키우라 아

빠가 힘들겠네.” 우리 애기 아빠를 천사 취급해요. 사실, 장사는 남자보다 여자가 하는게 낫잖아요. 하나라도 더 팔려고 그래서 나가는데 그럼 사람들은 “왜 힘든데 따라나오세요? 집에 계시지”라며 저를 나무라더라고요. 그런 인식들이 장애여성이 한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많은 방해가 되요. 그러면 제가 상당히 스트레스 받아요. 그래서 처음엔 장사하기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래서 사회활동을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인식의 눈이 뜨여야지 장애인도 한 몫을 할 수 있어요. 아이도 있는데 엄마가 그런 차별을 받고 있는 것을 아이가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 걱정도 돼요. 엄마가 특수한 사람이 아니라 하는 걸 알았으면 하고, 아이라도 장애인에 대한 편견의 인식이 없었으면 해요. 지금까지 제 강의를 듣고 질문 있으신 분 질문해 주세요.

자원봉사자 분담봉사에 대한 것인데요 장기간 할 수 있을 것 같아 좋은 것 같아요. 대부분 힘에 지쳐서 장기간 봉사를 하지 못해요. 여럿이 분담봉사를 하면 시간이 절약되고, 지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고 장애인도 조금이라도 장기간 봉사를 받을 수 있어 좋을 것 같아요.

김진옥 참, 허울로 자원봉사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단체로 오는 자원봉사가 그런데 그런 단체는 자원봉사는 안하고 탄짓만 하고 가는 사람들이지요. 학생들이 자원봉사를 해야 하는데 동사무소봉사, 장애인봉사 중 고르라고 하면 다들 동사무소로 간다고 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봉사한 후에 설문지를 보면 장애인 봉사했던 아이들은 뭔가 느낀 게 있지만 동사무소에서 봉사했던 아이들은 느낀 것 없이 놀다가 도장 받아왔다고 하더라고요.

장애인학교를 지을 때 한참 장애인학교를 못 세우도록 지역주민들이 반대했던 남비현상이 있었는데 장애인이 비장애인 교육에 왜 안 좋다는 겁니까? 우리 딸은 엄마와 아빠 하는 걸 보잖아요. 근데 아빠를 좋아하면서도 그렇게 엄마를 잘 챙겨요. 먹을 것 있으면 엄마에게 가져오고 껌도 까서 입에 넣어주고 아빠는 그냥 주고 말거든요. 그럼 남을 챙겨 주는 게 나쁜 건가요? 그리고 제가 종종 답답할 땐 발로 벽을 밀어내고 발로 워드도 치고 서경이 엉덩이도 때려주곤 해요. 그런데 딸 서경이가 어떤 때는 그걸 따라해요. 근데 애가 저를 흉내내는 것 못하게 안 해요. 동네에 장애인이 있으면 흉내를 내요. 그런 거 한다고 다리가 부러져요? 아니잖아요. 저는 비록 장애인이지만 자존심 있게 비굴하지 않게 살았다고 자부해요. 그런데 유독 시댁식구에겐 그러지 못해요. 그래서 참다가 위경련 일어나 응급실에만 적도 있어요.

얼마 전에 장애인 영화제 있었던 거 아시죠?

그때 바빴지만 한국사회에서 이런 영화제도 열리는구나 하고 반가운 마음에 기대하고

갔어요. 근데 장애인이 별로 없더라고요. 외국이 그렇게 장애인복지가 잘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장애인이 투쟁해서 이루어낸 것이거든요. 영화제가 장애인을 위해 열렸다는데 가보니깐 너무 썰렁했어요. 꽃만 두 단 있더라고요 일반영화제 같지 않았고, 복지단체서도 별로 안 왔었어요. 목소리가 이렇게 작는데 누가 장애인을 위한 일을 합니까? 장애인은 복지의 주인공이에요. 그런데 모든 일에 참여해서 장애인에게 불합리한 것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자기가 필요하지 않는다고 요구 안 하면 별 수 있어요? 퇴보할 수밖에 없어요.

전철을 타러 갔는데 장애인이 하루에 몇 명이나 리프트를 이용하느냐고 물었더니 몇 달에 한번이래요 그럼 나머지 한국의 장애인들은 모두 어디 있는 것입니까. 하도 안 쓰니까 리프트가 도리어 고장났다는 거예요.

결국은 장애인들이 자신의 권리를 찾고 이용하는데 적극 참여해야 사회가 변한다고 생각해요. 목소리를 높여야 해요. 옛날, 처녀시절엔 미니스커트도 입고 배꼽티도 입었어요. 초라하게 살 필요 없거든요.

친구들이랑 모여 떠들고 사람들의 인식의 변화를 주세요. '장애인도 굉장한 파워 있다'라는 인식이 들도록 노력해주세요. 결국 장애여성과 조력자들과의 관계, 그러한 근본적인 사회의 구조변화는 장애인 당사자들이 얼마나 강력하게 요구하느냐에 달린 것이라 생각해요.

감사합니다.

<별첨>

서울DPI 제2기 장애여성 아카데미 초청강연 “장애여성과 조력자” 결과보고

백은영 / 서울시립북부장애인종합복지관 지역사회복지팀장

1. 실시목적

노원지역에서 장애인들의 생활의 조력자로 여러 기관과 단체에서 활동 중이거나 활동을 희망하는 봉사자와 지역주민들에게 장애여성과 봉사활동에 대한 개념을 새롭게 정립할 수 있는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21세기 바람직한 봉사활동의 방향과 새로운 대안을 제시한다.

2. 실시경위

- ① 자원봉사 교육전문가에 의한 교육이 아닌 도움을 받을 장애여성 당사자 입장에서, 자원봉사의 내용과 태도가 장애인 대(對) 봉사자의 관계로 민주적이고 합리적으로 올바르게 정립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교육을 담당할 강사를 장애여성으로 섭외 계획함.
- ② 장애여성 아카데미 교육일정 중 '이동사회교육'의 일환인 '장애여성과 조력자'와 연계되어 강사를 소개받음. 이후 교육일정을 협의하여 노원지역자원관리 차원에서 노원지역의 자원봉사자들을 대상으로 홍보하고 우리복지관에서 실시기로 함.

3. 평가

(1) 장점

- ① 장애여성 강사로부터 듣는 강좌로서 장애여성을 서비스의 대상으로만 보는 일방

- 적인 관계형성과 이로 인한 관계의 부적절한 사례를 통해 장애인을 진정으로 배려하는 것이 무엇인지, 봉사자의 역지사지(易地思之)가 기본 자세임을 인식하는 기회가 됨.
- ② 장애여성을 대상으로 봉사활동을 처음 실시할 계획을 갖는 기관(나눔의집)의 참여와 노원지역에서 활동 중인 봉사자들에게 매우 유익한 정보제공과 상호협력 및 발전적인 관계형성이 가능해짐.
- ③ 관내 가정봉사원들의 교육시간과 연계하여 세부적인 교육과 장애여성 강사의 교육이 적절한 조화를 이루어 의미있는 시간이 됨.
- ④ 장애여성들을 위한 다양한 도움활동을 펴고 있는 봉사자들이 참여함으로써 활동 영역의 간접적인 경험의 기회 (장애여성 산후조리 도우미, 간병인 등)가 됨.
- ⑤ 지역 내 기관(나눔의 집)의 장애인 강사의 교육 필요성을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검토, 향후 기관자체 교육예정으로 장애인 복지분야의 관심확대.

4. 문제 및 개선할 사항

(1) 강좌 대상

자원활동 중인 봉사자들로 강좌의 대상을 선택하였으나 도움을 받고 있는 장애인도 함께 참여하였다면 더욱 효과적일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

(2) 교육시기

연초에 실시하거나 분기별 전체 봉사자 교육시 실시함으로 교육의 효과를 극대화.

(3) 참여인원 저조

관내 봉사자 교육 또는 지역 내 기관들과 충분한 참여 유도 필요.

장애청소년의 리더십 개발과 비전

나는 하나뿐인 존재, 너 또한 그런 존재, 그렇다면 우리를 함부로 할 수 없죠

박지주 / 송실대 사회사업학과 3학년
장애인인권확보를위한전국청년학생연합 공동대표

슬픈 드라마나 슬픈 일이 있으면 눈물이 납니다. 기쁜 일이 생기면 즐거운 웃음을 짓기도 하구요. 때때로 몹시 화가 나서 스스로 분노에 휩싸이게도 됩니다. 이런 모든 감정을 느끼는 것은 무엇인가요?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슬픔을 느끼고 기쁨을 느끼고, 행복을 느끼는 일은 바로 자기 자신이 느끼는 것이고 그 누구도 대신 할 수 없습니다. 이런 감정을 느끼고, 사고를 하고, 그것에 따라 행동하는 우리들은 이 세상에 하나뿐인 매우 소중한 그리고 고귀한 존재입니다. 그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것이죠.

내가 소중한 존재인 만큼 당신도 소중한 존재입니다. 우리 모두는 아름다운 존재이고, 그 가치는 어디에도 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때때로 우리를 함부로 합니다. 자기 자신이 싫어지고, 미워집니다. 특히 장애를 가진 우리들은 더더욱 그러한 함정에 빠집니다. 아마 친구들도 죽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을 겁니다. 그 죽음을 생각하게 하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요? 단순하게 사회에서 말하는 장애인이라서인가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가만하 손을 사고의 바다에서 흔들어 보면 내가 스스로 느끼는 장애보다는 사회에서 나에게 장애를 짊어지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 자신은 매우 소중한 귀중한 존재인데, 단지 신체적 정신적 일부의 손상으로만 바라봐 아무 것도,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한 사람으로 보고, 이 사회에서 함께 살아가는 모든 경우들에서 제외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옳은 건가요? 하나뿐인 나를 그렇게 놔두어서는 안됩니다. 그건 스스로의 삶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함부로 하는 이유들이 틀렸다고 얘기하고, 그것들을 고쳐가야 합니다.

얼마 전 삼육재활원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직업탐색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미래의 꿈들에 대해서 얘기하였습니다. 그 친구들의 꿈은 다양하였습니다. 사회복지사, 컴퓨터 프로그램머, 사업가, 선생님, 시인 등. 그 꿈을 실현하는데 자신의 장애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많은 친구들이 걱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열심히 하고 싶다고 하였습니다.

세상은 이런 우리의 조그마한 꿈들을 실현할 수 있게 평등하게 되어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런 세상의 잘못된 점들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얘기하고 고치도록 요구를 하여야 합니다. 왜냐고요? 그것은 나는 이 세상에 하나뿐인 소중한 존재이고, 그 소중한 삶의 기회들은 누구에게나 주어져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계신 재활원을 보십시오. 또 시내 길을 휠체어를 타고 맘대로 다닐 수 있나요. 많은 계단, 동물원 구경하듯 쳐다보는 사람들의 시선,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하게 하는 분위기, 이런 많은 일들 때문에 우리는 그냥 포기하면 안됩니다.

잘못됐다고 말하고 고쳐가야 합니다. 왜냐고요? 자기 자신은 소중하고 고귀하며, 그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는 권리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나라 역사를 보면 많은 불평등과 부조리한 구조들에 대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싸움을 하고, 그것을 바꾸어 나갔습니다. 또 세계 역사에서 여성들의 처음 선거권은 남성들과 동등하게 주어지지 않았었습니다. 지금의 시대에서 생각해 보면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우리의 소중한 인간됨이 인정되지 않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 위치에 서기 위해서는 많은 싸움들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지금의 미국을 장애인들의 천국이라고 합니다. 미국의 장애인법(ADA)이 만들어진 것도 채 10년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가만히 있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많은 장애인들이 자신의 소중한 삶을 포기할 수 밖에 없었고, 그 정당한 삶의 조건들을 평등하게 해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일본도 우리보다는 좀 낮습니다. 그들 또한 길바닥을 기어다니며, 정당한 권리를 요구하며 싸워서 그 고귀한 존재가치를 실현하였습니다.

삼육재활원에서 학생들이 그런 말들을 하더군요. 그게 쉽게 바뀌어 지냐고, 맞습니다. 쉽게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수십 년 싸워가면 반드시 바뀐다고 봅니다. 인간의 역사가 그렇듯이 말입니다.

여러분, 장애는 그 사람의 개인적인 잘못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 인간 사회가 있는 한 존재하는 것이고 이 사회가 함께 해결해 나가야 하는 사회적 문제입니다. 또한 장애인을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태도에서 변해야 합니다. 장애는 하나의 개성입니다. 끊임없이 고쳐나가야 하는 환자나 병자가 아닙니다. 누구는 빨간머리이고, 누구는 키가 크듯, 누구는 휠체어를 타고 살고, 누군가는 앞이 안 보입니다. 그것으로 인해 우리 삶이 제약당할 수

는 없습니다. 왜냐구요? 우리는 매우 소중한 존재이고, 고귀하고 아름다운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그 존재는 하나밖에 없고, 스스로가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제 세상이 우리를 함부로 대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얘기합니다. 이제 우리의 잃어버린 소중한 삶을 되돌려 달라고 얘기합니다. 장애인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불어넣어 달라고 세상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배척하는 모든 영역들에 우리를 포함해 달라고 과감히 요구합니다.

우리는 하나밖에 없는 고귀한 존재이고, 이 사회에서 자립적으로 삶을 영위할 권리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스스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회에서 실현해야 할 당당한 권리의 주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V 좌담회



문화 속에서 장애여성 자리찾기

장 소 : 연세대 상남경영원

참가자 : 고정욱 / 문학박사

김미선 / 작가

김형미 / 서울시 장애인복지과

김미연 / 장애여성문화공동체

극단 '끼판' 대표

사 회 : 고정욱 / 문학박사

〈좌담〉

문화 속에서의 장애여성 자리 찾기

고정욱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이 자리는 좌담이라는 형식으로 “문화 속에서의 장애여성 자리 찾기”라는 주제로 함께 논의하고자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저는 사회를 맡은 고정욱이라 합니다. 사실 좌담은 구체적인 주제를 놓고 각계의 전문가들이 자신의 입장을 소개하고 상대방의 입장을 배우고 결과를 도출해 나가는 게 가장 바람직한데, 오늘은 주제 자체가 갖는 광범위성 때문에 다같이 자유롭게 이야기를 해나가는 형태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우선 참석하신 여러분들이 각자 주제에 따라 하시고 싶으신 이야기를 형식에 구애됨 없이 이야기하고 토론해 보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우선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저는 작가면서 대학에서 문학을 가르치고 있고 있습니다. 올해 초, 김미연 선생님이 “이문열 작가의 『아가』라는 작품을 읽어봤나”고 해서 ‘읽어보고 뭔가 일을 내자’라고 해서 열심히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읽으면서 문학을 전공하고 쓰는 입장에서 또 장애인의 입장에서 이 작품을 어떻게 봐야 될지 객관적으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책은 출판되자마자 곧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이문열씨의 전 작품 『선택』만큼은 호응을 받지 못했지만 출판 당시 『아가』는 장애여성을 주인공으로 해서 또다른 논쟁을 일으킬 문제작이라는 이야기가 나왔지요. 『선택』의 경우처럼 또다른 논쟁을 일으킬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은 출판사와 이문열 씨뿐이었어요. 『선택』은 오히려 여성문제에 관심이 없던 보수적인 사람들이 불 정도로 사회적 반향을 불러일으켰는데 이문열씨는 “역시 훌륭히

우리의 이야기를 대변했다”는 반동적인 세력을 대변한 효과를 냈던 기억이 납니다.

『아가』도 역시 그러한 논쟁을 바라고 장애여성을 비하하는 시각에서 접근했던 작품입니다. 모해한 작가가 작품상에 있어서 반론을 제기하길 바라는 것 같아요. 그런데 논쟁이 벌어졌을 때 상대방이 얻는 부가 있다면 당사자인 우리도 얻는 부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이러한 경우, ‘얻는 것은 상처뿐이다’ 그런 우려의 메아리가 들려오기 때문에 『아가』를 철저히 분석해서 이 작품이 어떤 면에서 얼마나 장애여성을 비하했고 뭐가 문제인지를 정확하게 분석해 자유지 또는 책의 형식으로 반박을 해보고자 했지요. 그러면 『아가』가 팔리는 만큼 아니, 그 반이라도 팔리지 않을까 하는 현실적인 생각을 했었던 겁니다. 지나간 이야기입니다만.

작품을 읽어본 바에 의하면, 『아가』는 단적으로 말하자면 유교적 이데올로기의 메조히즘입니다. 메조히즘이 뭔지 아시죠? 세디즘의 반대입니다. 때리는 사람의 입장은 세디즘이고 메조히즘은 맞는 입장이지요. 지금도 여성계에서 유교적 이데올로기는 상당히 극복해야 할 거대한 산이라 생각됩니다.

제가 생각할 때 우리나라 여성은 세 가지 삼중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선진국 여성과 또다른 국가 간의 여성의 굴레가 있습니다. 선진국과 제3세계 국가와 차별되는 어떤 모순 그 안에서 여성과의 관계가 이중으로 오버랩 되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장애인이라는 문제가 삼중으로 오버랩 됩니다. 오늘 참석하기로 한 장애여성들이 못 온 이유는 장애인이라는 문제보다는 제3세계 여성으로서 겪는 가부장제 문화의 굴레 때문입니다. 건강한 남편 대신 장애를 가진 아내가 아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병원에 가야함으로 공식적인 약속장소에도 참석을 못하시는 것이지요.

각설하고 『아가』는 작가 자신은 절대 책임지지 않는 교묘한 수법으로 장애여성에 대한 비하와 조롱 그리고 인간으로조차 보이지 않은 시각을 가지고 당편이란 여주인공을 시화하는 장면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철저히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나레이터를 하나 잡고 작가의 입장에서 누가 그랬더라, 누가 어쨌더라 하는 방식으로 철저히 들은 얘기로 글을 쓰고 있습니다. 이문열이 얼마나 교활한 인간인가 다시 한 번 경탄을 금치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문학계 여타 작품들에서 장애여성에 대한 편견들이 내재된 작품들이 있는데 『백치 아다다』, 『병어리 삼룡이』 등과 같은 작품들입니다. 『아가』는 장애여성을 비하하고 조롱함으로써 장사 속을 췌기고 논란을 일으키기 좋아하는 문학계에서 또 한 번의 논쟁의 중심에서 보고 싶은 목적을 갖고 있었던 것 같은데 오히려 같은 장애인인 우리 입장에서 는 장애여성에 대한 차별의 지점들을 명확히 보여주는 ‘차별 교과서’라고 지적할 수 있을

만큼 좋은(?) 자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하하

김미선

소설을 쓰는 작가로서 작품이 장애인인 저의 딜레마란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사실, 소설을 쓰기 시작했을 때는 글을 쓴다는 것은 육체적인 노동을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는 것도 아니고 연필 하나면 정신적 상상을 맘껏 펼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가로서 활동하면서 상상력이란 단순히 물질이 보이지 않는 곳으로 날아가는 것이 아니라 현실과 직결되어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예를 들어 시각장애인이 꿈을 꾸다고 가정할 때, 4살까지만이라도 앞을 보았을 경우 꿈을 꾸는 것과 태어날 때부터 세상을 보지 못한 사람이 꿈꾼 것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이런 것을 보면 정말 어렸을 때부터 억압되어 있고 그 한계가 관계되어진 사람이 — 문학이나 예술은 한계가 없는 일인데 — 늘 한계를 느끼고, 한계 지어져 있다면 알게 모르게 무의식까지 억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이 온전한 상상력을 펼칠 수 있을까요?

보편적인 입장에서는 장애인도 장애인으로 한계를 지어지지 않으려는 의식이 있거든요. 사회에서 '너는 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밀려나 있다면 문학을 할 경우 어떨까요? '나는 할 수 있다'라는 관념에서 문학을 시작하는데 장애인의 경우 '난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내면에 스며 있어서 겉으로 보이는 면과 충돌, 자기분열 현상에 처하게 되지요. 그러한 시점에서 과연 깊은 인간정신까지 성찰이 가능할까요? 깊은 성찰까지 도달하려면 분열되지 않고 에너지를 모아야 하는 것이 아닐까요? 그런 속에서 자기의 정신성을 확인하고 그 정신성을 분명히 할 수 없었던 자신을 인정해야 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인정을 통해서 사회에서 꼭 할 수 있다고 내세워야 하는 주류적인 관념을 바로 직시해서 사회와 통합되는 과정을 이루어 나갈 수 있음으로써 결국 그 관점을 지워나가야만, 예술이 아무리 상상력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이 사회에서 그 가슴을 치게 하느냐? 장애인이기 때문에 정신은 말짱하지 않느냐? 그런 쪽에서는 너희들이 잘 해야 하지 않느냐?라며 자리를 마련해주면 굉장히 선심을 베푸는 것처럼 되지만 결국은 억압되었던 것을 인정하고 그것에 대해 자신을 인정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교육이나 충분히 논의할 만한 자리가 없이 계속 될 수 있는가?

숫대문학 아시죠? 저도 숫대문학에서 많은 중증장애인들을 봤는데 정말 못 움직이는 데에서 글을 쓰는데 기성의 교육받은 작가나 평론가 등 사람들이 볼 때 우습게 본단 말이에요.

이런 영역에까지 우스움을 당해야 하는가? 그 사람들의 한계점을 직시하고 또 한계점을 뛰어넘을 만한 또 하나의 교육이나 도움이 없이 못한다는 장애인 위에 또 하나의 정신적인 불평등일 수 있다는 거죠. 모일 수 있는 사람들끼리 충분히 논의를 하고 남이 만들어 줄 수 없는 거니깐 자기가 활동을 하면서 느낀 것에서 정리하고 그 성찰의 길을 가르쳐 주고 그렇게 해야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미연

지난 주 SBS 수요기획에서 '소외된 기회, 장애인 올림픽'이란 제목으로 시드니 장애인 올림픽에 참여했던 우리나라 장애인 스포츠인들에 대한 이야기가 방영되었었어요.

그 올림픽에 참가해 400미터 휠체어 레이싱에서 금메달을 딴 문정훈 선수에 의하면 "정말 열악한 환경에서 이를 악물고 열심히 해서 금메달을 땀는데 같은 금메달인데도 일반 올림픽과 달리 아무도 주목하지 않더라고 전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한번 좌절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장애인이기 때문에 자신이 성공한 영역에서조차 인정받는 일이 얼마나 힘들고 가슴 아픈 일인지 실감이 났었습니다. 가슴 아픈 것은 장애인의 스포츠는 스포츠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이었어요. 단지, 인간 승리의 결과인 재활프로그램의 일환으로만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지요. 일반 올림픽이나 장애인 올림픽, 모두 선수 자신이 자기의 한계를 뛰어넘어 새로운 기록에 도전하는 것은 마찬가지인데, 우리 사회는 동등한 도전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지요. 장애인 올림픽 자체를 어설픈 재활프로그램의 하나로, 또는 인간승리 내지는 자기장애 극복의 순위로만 인정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러한 생각들을 정리하면서 저는 '문화영역 중 큰 영역을 차지하고 있는 스포츠, 좀 더 포괄적으로 말한다면 레포츠 문화 영역까지 포함해 정말 우리 사회의 관심과 동등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각설하고 올해 2000년 여성발전기금에 선정된 '장애여성 차별의식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실시된 장애여성 공연사업으로 장애여성문화공동체 극단 '끼판'을 창단, 문화공연을 통한 장애여성 목소리 내기를 시도해 보았습니다.

이 사업은 이문열씨의 『아가』라는 작품을 읽게 되면서 타자에 의해 왜곡되는 장애여성의 이야기가 아니라 스스로 장애여성이 자신의 목소리를 갖고 자신의 이야기를 공연의 작품으로 올려 보자는 것이 그 취지였습니다. 그래서 이 공연의 소재를 『아가』의 주인공인 '당편이가 부르는 노래'라고 했지요. 장애여성 당사자들도 자기 목소리의 주인공이 되어 보자는 것이지요. 장애여성 아카데미의 슬로건이 '함께 모여 우리의 목소리로 이야기 합시다'

인 것도 이러한 뜻에서입니다. 그래서 아카데미 강사들이 되도록 장애여성들로 구성하도록 노력했어요.

극단 끼관의 '몸짓 하나, 나는 나' 라는 작품의 취지도 장애여성인 우리들이 우리 이야기를 가지고 무대를 만들어보자는 거였어요. 지금까지 장애여성들에 대한 사회의 문제제기는 성폭력 또는 가정학대의 대상으로 오히려 더 어두운 이미지를 만들어냈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평범하고 잘 사는 장애여성들이 인간승리 등으로 더 특이하게 보이는 게 우리 사회의 왜곡된 시각인 것 같아요.

이러한 잘못된 장애여성의 인식을 문화라는 영역을 통해서 새롭게 개척해보자 라는 것이 장애여성문화공동체 극단 <끼관>의 창단 취지예요. 창단공연 준비과정을 통해 장애여성들이 자기의 삶의 문제를 부딪쳐 나가면서 강해지고 과감하게 자기 이야기를 무대 위에서 해내는 경험 자체가 새로운 장애여성운동의 장을 마련하는 것이 될 것이란 기대감이 있었어요.

고정욱

제가 얼마 전에 중앙일보에 장애인올림픽 관련해서 글을 기고한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장애인들은 목숨걸고 금메달 따러 올림픽에 참가합니다. 사실 올림픽에 나가는 자체가 즐겁고 금메달 따면 더 즐겁고 축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외국의 장애인들은 분리된 장애인 스포츠가 아니라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하는 통합스포츠를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이 자기가 살고 있는 아무 스포츠 센터에 가서 열심히 운동하고 운동이 재미있으니까 열심히 해서 기록을 만들고 그래서 더 열심히 하다보니까 한번 장애인 올림픽에 나가보게 되고 여기에 금메달을 딴다면 더 즐거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아직까지 장애인 스포츠 자체가 낯설고 이상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장애인이 스포츠를 할 만한 시설도 없는 형편이지요.

지난 시드니 올림픽에 참가하는 우리나라 장애인선수들이 정부에 전용체육관을 만들어 달라 연금을 올려달라라는 여러 요구사항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통합 스포츠가 활성화되어야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일반체육관이라도 장애인이 편리하게 운동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장애인 스포츠 활성을 위해 더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미연

극단 '끼관' 이란 '끼어들어 판 별이자' 라는 말의 앞 글자를 딴 것입니다. 장애인 문화 영역에서 관객으로서 뿐만 아니라 주체로서도 철저히 소외되어 있습니다. '끼어들자' 는 말은 이러한 소외현상을 인정하는 것이지요. '끼어들어 판을 벌여보자' 는 것은 한 번 주체가 되어 보자는 것입니다.

창단준비를 하면서 첫째로 어려웠던 점은 '재활' 을 위한 장애인의 무대, 즉 사회복지사들이 정신치료요법의 하나로 하는 사이코드라마 '티' 를 갖지 말아야 하는 것이었어요. 우리가 만들고 싶었던 무대는 진짜 연극무대였거든요. 그래서 우선, 연극계에서 정식으로 활동하고 있는 연출가나 극작가를 찾았어요. 그런데 제가 손쉽게 만날 수 있는 사람 중에서는 장애인에 대해 관심 있는 연출이나 극작가를 찾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우린 장애여성에 대한 사회의 인식을 개선하고자 하는 의도적인 작품을 만들어야 했기 때문이었어요. 예술가들은 작품이 의도성을 갖는 것에 있어서 배타적이더라고요.

어쨌든 어렵게 우리의 의도에 동감하는 연극계 사람들을 만났지만 그들에게 장애여성이라는 주제가 낯설고 이해되기 쉽지 않는 주제라는 두 번째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우선 작가와 개인적인 차원에서부터 장애여성의 이야기를 해나가기 시작했어요. 작가는 같은 여성이라는 지점에서부터 장애여성을 이해해 가더군요. 그리고 우리는 오디션을 통해 선발된 장애여성배우들의 삶의 이야기를 통해 장애여성의 목소리를 찾아보려고 했어요. 하지만 정작 장애여성들은 자신을 장애를 가진 여성이라기보다는 장애인으로 인식하고 있더군요. 일반 여성들도 여성주의 시각을 갖기가 힘든 것처럼 장애여성이 자신의 장애를 여성주의 시각으로 바라보거나 여성으로서의 자신의 삶을 이해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던 것이지요. 하지만 같이 작품의 내용을 만들고 거기에 자신의 실제 이야기들을 소재로 내놓으면서 장애여성 배우들은 차츰, 스스로 장애를 당당하게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자기 장애를 무대의 소재로 쓰기도 하고 자신의 장애가 드러나고 의수가 보이는 것도 용납하면서 당당하게 자기를 내놓기 시작한 것이지요. 배우 역할에 충실하기 위해서 자기 장애를 받아들이고 여성으로서의 자주적이고 독립적인 자신의 모습을 만들어 가는 결과를 낳은 것이지요. 그리고 이와 같이 내용을 만들어 가는데 있어서 장애여성문제 그 현장을 찾는 것도 매우 어려운 지점이었지만 무엇보다 어려웠던 것은 우리와 함께 하는 연출가나 배우 그리고 무대 디자이너, 의상 디자이너 등의 스태프들에게 '장애' 나아가 '장애여성' 을 이해시키는 일이었어요. 그들에겐 우리가 '생전 처음 만나 보는 장애인' 이었더군요. 그래서 공연준비는 자연스럽게 '장애인' 과 '비장애인' 이 서로 이해해 가야 하는 과정이 필수적으로 필요하게 되었어요. 공연장소로 휠체어를 타는 배우와 관객으로 오는 장애인들이 활동

하기 편리한 편의시설, 화장실, 엘리베이터가 무엇보다 가장 우선 고려해야 하는 기준이라는 제 입장이 일반 연극 스태프들에게 이해되기는 무척 어려운 것이었지요. 자칫 예술성이 침해받는다 생각하더군요. 장애를 고려한 무대의 컨셉, 의상의 컨셉 등등 서로 조율하고 맞추어 가는 것이 그리 쉬운 것은 아니더군요. 스태프들에게 연극 제작자로서 경험이 없는 저나 장애여성 배우들이 영향력을 갖기도 쉽지 않았구요. 일반 연극인들이 장애인 배우들의 '특수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고려해 연출해 내는 작업이 우리 나라에서는 경험하기 어려운 것들이니까 이해가 되기도 해요.

그리고, 세 번째 어려움은 언론들의 아주 감각적인 관심들이었어요. 우선은 그 관심 덕분에 장애여성이 자기 이야기를 무대를 통해 알려 나가고자 하는 노력을 사회에 알리는 것은 가능했어요. 그러나 '장애여성들이 용기를 냈다'라는 관점 이상은 아니었어요. 예를 들면 장애인들의 문화영역에서의 소외현상이나 이를 해소하기 위한 사회적 노력의 필요성 그리고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무대에 설 수 있기 위해서 무대를 만들어 가는 사람들의 '어떤 노력'이 필요한 것인지를 심도있게 고민하는 언론들은 결국 없었다는 겁니다. 단순히 '장애여성들의 커밍아웃'이라는 측면으로만 이해된 것이지요. 결국, 장애여성들이 도전하고 용기를 낸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다는 것이지요. 진짜 우리가 원하는 '끼어들기'가 제대로 읽히지가 않았어요.

우리 공연의 궁극적인 목적은 장애인들이 연극계로 끼어들어 보는 계기를 만들어 보는 것이었어요. 장애여성 배우 중에서 막연히 무대에서 보고 싶어 참가했다가 자신이 진정 연극을 하고 싶어한다는 것을 깨닫고 전문배우가 되고자 결심(?)을 한 배우가 있어요.

그런데 과연 전문 연극인을 배출해 내는 교육기관이 장애인을 연기 학생으로 받아 줄 것인지 걱정이 되기도 해요. 아직까지는 무대에 장애인이 등장하는 것 자체가 충격인 우리 사회에서 말이죠. 하지만 장애인이 나오는 드라마나 연극에 당연히 장애를 가진 배우가 그 배역을 할 수 있도록은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요. 이 장애배우의 도전이 실제적인 '끼어들기의 시작'이라고 생각해요.

고정욱

연극도, 문학도 마찬가지로 장애인이 '끼'를 보일 기회를 주지 않는다는 점에서 문화적으로 소외를 받지 않나 생각합니다. 어제도 네 손가락을 가진 장애소녀 희야의 피아노 공연이 있었는데 다행히 희야는 어렸을 때부터 피아노를 통해 자신의 끼를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만나 이제는 그 자질을 잘 다듬어 무대 위에서 관중을 압도 할 수 있는 연주가가 되

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기회만 주어진다면 예술 세계에서조차 자질과 끼가 있는 장애인들이 많이 배출되지 않을까요. 가장 자유롭고 가장 인간의 정신에 가까운 문화분야조차도 장애인들을 이렇게 소외시키는 불모지라는 것이 안타깝군요.

김미선

끼판은 아직 아마추어잖아요. 자기를 단련할 기회가 없었던 거 같아요. 그게 결국 커밍아웃으로 밖에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해도 실망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시작하자마자 그 사람과 같은 레벨이 되고자 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라고 생각해요. 일반 사람들도 인정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이고요.

고정욱

장애인이 어느 정도 영역까지는 활동하는데는 아무런 어려움이 없어요. 그러나 어느 선을 넘어서 뭔가 사회에 책임을 지거나 이끌어 가는 부분에 진입을 하려고 하면 더 강력하게 저항을 느낄 경우가 많습니다. 여담이지만 저 같은 경우 대학교수가 되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데 지방대학에 설립자가 장애인을 가장 이해할 것 같은 의사라서 원서를 냈는데 서류 일순위로 올라가서 이사장 면접에서 떨어졌어요. 이사장이 '왜 장애인을 최종심까지 올려서 사회적인 덕망 있는 나를 욕을 듣게 하느냐'라고 했다더군요. 문화뿐만 아니라 모든 영역에도 우리 사회에서 장애인이 주도적인 일에 능력을 발휘하려 했을 때 장애가 얼마나 큰 꼬투리가 되는지 연극, 문학이 그렇고, 애초에 제가 작품 베스트셀러를 내고 인터뷰에서도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얘기하지 말라고 기자에게 그랬는데 장애인 작가가 아닌 인간 작가이기 때문이에요.

문화라는 인간 삶의 영역이 결국은 품질과 실력의 문제라면, 제대로 된 작품과 공연, 제대로 된 배우, 그리고 실력 있는 선수라면 장애에 대한 편견을 뚫고 가는데 선두적인 역할을 해 나갈 수 있을 꺼라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 모인 의미도 문화라는 영역에서 어떻게 비집고 들어갈까란 거죠. 우리가 중심이 되지 않는 '깁다'는 객체의 개념은 특히 여성을 더 더욱 소외시킬 것이라 생각합니다.

김미선

장애인으로서는 뭔가 할 수 있다는 건 좋죠.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어렵다는 걸 이제는 받아들여야지 않겠어요? 전에는 자기 한 개인이 성공을 이룰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의 시점에서는, 정말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성공이라고 생각되어요. 제가 문학을 하면서 장애인이기 때문에 좋은 작품인데도 인정 못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쓰고싶다라는 갈망에 의해 작품을 썼지만 작가가 갖고 있는 장애로 말미암은 한계가 분명히 있어 실제로 좋은 작품이 나올 수 없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장애인 작가로서는 밀턴, 베토벤 악성, 사가천 등 장애인으로 성공한 예술가가 있다고 하지만 사실은 다들 중도 장애인들이에요. 베토벤도 그렇고 사가천도 그렇고, 바이런은 장애인이었지만 귀족이었어요. 그 시대에 귀족은 장애를 떠나서 개인교습으로 공부 받을 수 있는 환경이었어요. 그 경우에 그 사람 속에 장애라는 것이 그토록 아프게 남아 있었을까요? 사람은 태어나서부터 10살까지 육체의 골격이 만들어질 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모든 게 형성되지요. 어려서 장애인이 된 사람은 그래서 억압 받은 상처가 있다는 거지요. 절실하게 내 정서 속에 남아있는 소외에 관해서 객관적으로 그 사람이 아픔을 겪어야 했죠. 왜냐하면 사회가 비장애인 위주로 나가고 있잖아요. 장애인들은 그 속에서 억압당하고 인정받지 못하고 살아가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고찰은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던 거지요. 그냥 아프면서 삭히고 있었다는 거지요. 작가라는 것은 자기의 내적인 사회를 바라보는 전체적인 시각을 획득해야하는데 장애인의 경우, 그게 어렵다는 거지요. 저는 개인적으로 일본의 무라카미 하루키라는 작가를 좋아했는데 고통없이 일상을 지나가는 그의 글은 내가 만들어 내는 글의 상대적인 글로 여기고 계속 읽고 그렇게 써 보려고 노력했는데 그 사람의 글이 나한테 획득이 안되는 거예요. 저는 장애인의 삶을 다루는데 장애인의 언어로 써야 한다는 것을 그때까지도 몰랐던 것이지요. 장애인의 말을 하기 위해서는 장애인의 언어로 말해야 하는데 사실, 장애인의 언어가 없잖아요. 결국 정상인의 언어로 장애인의 이야기를 해야 하는 것이 현재의 상황이죠.

왜 장애인의 언어가 되어야 하는가 하면, 일반사람들은 그냥 통합되어 사회가치관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대로 세상을 바라보고 글을 쓸 수 있는데 장애인은 그 틀이 없기 때문이에요. 장애인이 훌륭한 작가가 되기 위해서는 장애인의 시선과 비주류의 입장에서 이 세계를 사유할 수 있는, 어떤 면에서는 상상가도 되어야 하는데 그런 후에 감수성이 있는 작가가 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교육 못 받은 사람은 자기 하나니깐 모여 있어도 문제가 되고, 그나마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전체에 장애인이 나 하나여서 사유적인 언어를 가지고 있을 수 있을까? 생각이 되기도 해요. 그런데 가지고 있지 않은 입장에서 훌륭한 작

가가 되기 위해 내가 몸부림 쳤다는 점에서 어떻게 보면 그것이 욕심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 사유를 하기 위해서 장애인인 우리는 모여야 되고, 우리의 언어를 다시 만들어 가는 방법을 모색해야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고정욱

저도 장애인에 관련된 주제를 발표하기 시작한 것은 얼마 되지 않았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장애인들이 쓸 수 있는 경험, 장애인이기 때문에 있었던 아픔, 경험들을 일반인들에게 형상화하기 위해서는 보편성을 획득해야하는 부분이 중요해요. 문학사를 훑어보면 주제유형별로 80년대에는 민족문학이 주류를 이루었는데, 주로 그 문학의 유형이 노동해방이에요. 그 이전에는 노동이 무슨 문학이겠습니까? 모든 작가들은 한때 운동성 작품들을 많이 썼지요. 이렇듯, 사회의 보편적 패러다임과 맥을 같이 하는 보편성을 획득해서 작품을 쓸 수 있다면 장애이야기를 비장애인인 나의 아픔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큰 자산을 얻게 되는 것이지요.

어떻게 보면 장애인에 대한 소재가 문학에 있어서 한 부분을 차지하는 무한한 광산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적으로 저는 최근 몇 년 전부터 장애인을 중심으로 한 아동문학작품 동화를 쓰고 있어요. 장애유형별로 다 쓸 생각이예요. 그 책들이 베스트셀러가 되었어요. 동화는 이미 소재가 바닥이 났는데, 장애영역에서 책이 나오면서 아이들에게 빅히트가 되고, 장애라는 소재는 무궁무진합니다. 일반 보편성만 획득할 수 있다면, 그걸 형상화시켜서 정서적으로 울릴 수 있다면, 문학 쪽도 얼마든지 장애인이 한 몫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볼 때 다른 작가들이 흥내내다가 실패했어요. 예를 들어 어떤 작품은, 동네의 정신지체 아이와 같이 놀고, 친구가 되고, 적당히 살만 하니깐 그 아이가 특수학교로 가는 식의 결말이었어요. 장애인들의 행복은 특수학교에 가는 것이라 착각했기 때문이죠. 여기 아가에서도 재활원으로 가는 것으로 나와있죠. 장애인에 대해서 너무 모른다는 거지요. 장애인들이 원하는 바, 추구하는 바를 모르고 작품을 쓰고 장애인을 문화적인 객체나 주체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것이 장애인의 편입을 거부하는 결과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미선 선생님의 말에 이해가 가요. 어느 부분이든 한계가 있습니다. 장애인 작품이 문화의 어떤 한 현상으로써 끼어들 수 있다면, 그래서 인식의 영역도 확대가 된다면, 장애인 문학도 언젠가는 일반 문예지나 잡지에 쓰여지는 하나의 문학으로서 인정받게 될 날이 올 것이라 생각합니다.

김미선

그런데 그런 글이 없는 게 사실이지요. 노동문학, 농민문학, 횡자적인 언어들이 나오는 것이 통념이 됐잖아요. 지금은 자기만의 목소리를 내는 것은 보편성을 획득하지 못한다고 생각해요. 농민문학이나 노동문학에서는 이런 자기 생자소리의 과정이 있었어요. 그런데 장애인은 그 과정을 만들어 내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제는 문화 생자언어를 사용할 수 없는 2000년대에 들어왔기 때문에 사실은 생자적인 언어를 실험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내적으로 스스로 키운 보편성의 언어를 가진 사람이 나타나지 않는데, 우리가 아무리 목소리를 높여서 '왜 장애인 문학은 안 실어주냐?' 라고 말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생자적인 문학이라는 것은 자기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노출하는 거예요. 전체적인 보편성을 획득하기 위해서 노동자 문학은 노동자들이 봐야 공감을 갖고, 여성문학은 여성들이 공감을 가질 수 있는 거지요. 자기만의 영역을 가지고 막 밀어붙였던 때가 있었다는 거지요. 그런데 그게 요즘은 안 되는 시대라는 거예요.

고정욱

제가 생각할 때 장애인들이 하나의 다양한 영역에서 노동문학, 포스트모더니즘, 동성애 문학, 여성문학, 사이코문학 등과 같이 장애문학도 하나의 영역으로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위치를 확보할 수 있느냐 라는 것을 고민해야한다고 생각해요.

연극에서도 마찬가지로요. 장애인 연극, 남성 연극, 여성 연극 등이 있을 수 있어요. 근본적인 건 다양성이예요. 그러면서 중요한 건 보편성이예요. 장애인에게 일정 분량을 떼어 줄 테니 써라 해도 사실 쓸 수 있는 장애인이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기성문단에서는 숏대문학을 거들떠 보지도 않아요. 장애인이라서 왜 안 봐주냐? 왜 안 꺼주냐? 말할 단계는 지났고, 이제 우리도 끼어보자! 라는 건, 우리도 일정부분에 목소리를 내보자라는 건, 결국엔 비장애인이 읽어도 문장도 제대로 되어있고, 나름대로 감동을 주고 이런 부분에서 알게 되고 참 쟁하다. 노동문학을 나도 많이 읽어봤지만 내가 노동에 대해서 잘 모르더라도 이런 점에서 가슴이 아프고 그래 우리의 역사는 이런 사람으로 인해 발전해나가는구나. 80년대 후반에 길거리에서 벵타이를 다 모은들 애들이 농민들의 문학을 제대로 알겠습니까? 하지만 그런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게 농민들의 목소리가 이미 사회 저변에 자리를 잡았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요. 그런 부분영역을 나름대로 확정하고 자신의 나름대로의 목소리를 꾸준히 끊이지 않게 힘을 실어 나간다면 다양성 안에서 얼마든지 우리들이 편입되어

나갈 수 있는 것이고, 숏대문학이나 장애여성의 의도적인 '끼판' 같은 것도 사라질 지 모르지요. 이런 상황이 올 수 있다고 생각되요. 또 와야 하고, 이런 부분에 다양성의 사회가 가능하겠죠.

오늘 좌담은 문제를 대충 벌여 놓은 것 같은데 각자 한 마디씩하고 이제 정리를 하지요.

김미연

사실은 문제제기가 된 것 같아요. 제가 해했던 감각이 잡히는 것 같고요. 장애인의 영역, 장애여성의 운동도 다양성에 의해서 정당성이 확보되더라고요. 장애여성은 장애와 여성이라는 이중고의 억압을 갖고 있는 정도의 논리로는 그 운동의 정당성이 도저히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그때 고민이 되서 찾아냈던 것이 차이의 정치학으로, 다양성들 주변부에 있던 소수자들의 연대를 통해 잘못되어 있는 중심들을 어떻게 해체해 나갈 수 있느냐 였어요. 이러한 논리가 장애여성 운동의 이론적 토대가 될 수 있다고 생각되었어요. 그래서 그 지점에서 문화의 영역에서도 장애인의 문화가 같은 지점을 갖고 있다고 봐요. 그리고 결국은 장애인 문학의 아이덴티티나 전문성 부분에서도 뒤지지 않게 만드는 것은 사실 그 역량을 갖춘 장애인 즉, 사람의 문제라고 생각되어요. 예를 들면 저희 배우들이 단순히 무대에 한번 서 보겠다는 동기로 나타났지만 진짜 그 '끼'가 있고, 하고 싶어해서 이젠 연기학교에 가고싶다 하면 그것을 그렇게 되도록 뒷받침을 해야 그런 인물이 태어나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장애인들이 나올 수 있도록 무엇을 만들어야 할까요? 주변환경과 사회제도 또 여러 여건들을 마련하는 그 지점들이 논의되어야 할 것입니다. 정책적인 측면에서 장애를 가진 예술인들이 양성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보편성과 다양성을 겸비한 장애인 문화를 형성하고 유지할 수 있는 인재를 키워 나갈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가는 작업을 본격적으로 해야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우리 사회에서 장애인 문화, 그리고 나아가 문화 속에서의 장애여성의 자리찾기가 실현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인재들을 키워 나갈 제도적인 환경 마련이 현재, 우리 사회의 큰 숙제가 되는 것이지요.

고정욱

현재로는 문학, 음악 미술, 끼판, 숏대문학 등을 묶을 수만 있다면 그런 어떤 토대나 하부구조는 형성이 될 수 있을 텐데 문제는 자금입니다. 문예진흥기금 등 따낼 수 있는 대로

따라서 자금을 지속적으로 이끌 수 있는 응집력을 만들어야 해요. 장애인도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면 그 다음 삶의 질은 문화예술분야 즉, 예술을 이해하고 즐기면서 삶의 여유를 누리는 진짜 인간다운 삶을 구현하고자 하게 될 것이에요. 지금까지 너무 도외시 되어 왔고, 이제는 문화예술 분야의 척박함에 대해서 문제제기가 됐으니깐 조금씩 여건을 조성해서 정말 장애문화예술인이다 라는 얘기를 자랑스럽게 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해요. 이를 위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지원이 있어야 하겠고, 그에 상응하는 사업도 있을 수 있어야 하며, 그래서 그러한 환경이 활성화된다면 삶의 다양성에 편입해 들어가는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너무 척박하기만 한 것이 현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같은 이런 모임들이 있게 된 것이고요. 결과는 자금 즉, 돈인 것 같아요.

김미연

기관 창단공연이 네 번 중, 세 번은 장애인 관련 기관에서 했고 한 번은 초청공연을 했는데 관객이 주로 제가 속해있는 일반인으로 구성된 사이버공동체였는데 우리 공연에 대한 충격은 오히려 비장애인들이 많이 받더라고요.

미국에 장애를 가진 연출가가 연기학교를 하고 있는데 그분의 관점이 장애인이 모든 캐릭터로 활동하지 못해도 드라마에 장애인 역할만큼은 장애인이 캐스팅이 되도록 하는게 그 연기학교를 운영하는 목적이라고 하더군요.

우리나라는 그러한 예로 김덕수 선생님 산하에 장애인으로 구성된 사물놀이패가 있어요. 지체장애인 1명과 시각장애인 3명이 그 구성원인데 그들은 정말 프로 사물놀이패였어요. 정말 프로페셔널한 진면목을 보여주니깐 사람들이 정말 동등한 대우를 해주더라고요. 제가 봤던 장애인 공연팀 중에서 가장 전문성을 갖춘 팀이었어요. 문화예술 분야에서도 장애인들이 끼가 있고 그 일을 본업으로 하고 싶은 사람도 있어요. 인정만 받으면 사실 그 일로 밥 먹고 살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런데 그 지점까지 이끌어 주는 지원이나 기회가 없는 것이 문제죠. 이런데 본격적으로 지원할 제도가 있어야 하지 않겠어요? 동시에 이런 인물을 키워내는 일도 장기적 차원에서 경쟁력을 키워주는 거잖아요. 고기를 잡아 주는 게 아니라 낚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거니깐 더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효과가 나타나게 하는 것이지요. 개인적으로 저는 사실 평범한 식품영양사로 살고 싶었어요. 그러나 사회는 그런 저의 소박한 꿈을 허용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장애여성운동을 하게 되었다고 봐요. 이러한 시대에 태어난 장애여성이기 때문에 어찌보면 거칠고 외로운 장애여성 운동영역에서 있는 것인지도 모르지요. 장애인이지만 소리꾼은 소리꾼으로 살 수 있는 세계가 어서 왔으면 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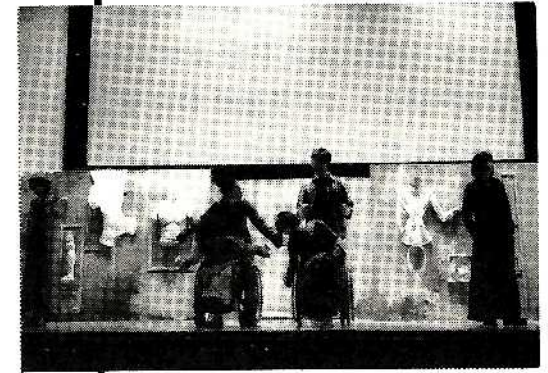
고정욱

정상적인 부부가 결혼을 해도 장애인이 태어나고 삼성전자나 최첨단 생산라인에서도 꼭 백만 개, 천만 개에서도 불량품이 나와요. 자연에서도 똑같은 환경을 받아도 미성숙 과일도 나와요. 우주의 섭리가 완벽하게 짜여져 돌아가는 게 아니라 불완전하기 때문에 이런 여백을 가지고 다양성이 나온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할 일은 장애인의 사회통합이라는 궁극적인 목적도 결국 그 역할을 하고 사회를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을 키우는데 관건이 있다고 보고 일단은 힘을 모아야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결론도 거의 이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내년부터는 문화영역에서도 제대로 역량을 발휘 할 수 있는 각 분야에서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인재를 키워 가는 것에 서로 노력하고, 그러한 사회적인 환경을 만들어가고 저 역시 개인적으로 장애인 후배 양성과 후원을 위해 노력하고 아이디어를 내야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러다 보면 먼 훗날 정말 문화영역 각 분야에서 장애인, 나아가 장애여성이 한 두명이라도 포진되어 그 사람을 불씨로 문화영역뿐만 아니라 전체 사회에 통합되는 실마리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가져 봅니다. 이러한 시대를 꿈꾸며 오늘 좌담회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VI
부록



내가 '꼴값' 하는 이유 / 김효진

장애여성 문화공동체 극단 <끼판>

장애인의 몸짓은 아름다워라 / 기사

문화를 통한 장애여성의 자리찾기 / 김미연

이문열 소설 『아가(雅歌)』 비평

설문조사

내가 '꿀값' 하는 이유

김호진 / 장애인문화 웹진 '꿀값' 편집장

나는 요즘 '꿀값' 하는 재미에 푹 빠져 있다. 웹진 '꿀값' 에서 우리의 목소리로 이야기하고, 공감대를 나누는 재미가 쏠쏠하다. 그곳에서 저마다 감추어 두었던 자기 목소리를 내며,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과 소통하려고 준비하고 있다.

내가 웹진을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한 이유는 여러 가지이다. 먼저 인터넷이 소외된 장애인의 소통과 연대를 위한 문화표현 공간으로 유용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인터넷은 현실 세계에서 스스로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공간이 턱없이 부족한 장애인이 기성 미디어에 의존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우리의 생각과 주장을 전파하고 여론을 형성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매체이다.

그런데 인터넷의 바다를 아무리 헤엄쳐 봐도 장애인 웹진은 찾아보기가 어렵다. 현재 장애인관련사이트는 장애인 당사자들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는 공간이라기보다는 장애인을 위한 사람들이 그들의 목소리를 내는 공간의 성격이 짙다고 판단했다. 특히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사이트가 많은데, 복지관 홍보나 프로그램 소개에 목적을 두고 있으므로 장애인 당사자의 목소리가 드러나지 않고, 사이트를 이용하는 장애인이 일방적으로 시혜를 받는 입장에 서게 되는 문제가 여전히 남는다고 본 것이다.

장애인들의 참여도가 높은 사이트는 어떠한가? 거기에는 장애인들만 참여하는 공간이 대부분이어서 장애인 문제를 두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활발하게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공간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우리들은, 평소 장애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장애인 당사자들의 목소리가 중요하며, 비장애인도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밝히고,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 그래서 장애인의 문제와 이슈가 일부 장애인만의 공감대 형성으로 그치지 않도록 비장애인과 함께 보는 인터넷 잡지를 우리 손으로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뜻 맞는 몇이 모여 어떤 잡지를 만들어야 할까 의논하던 중, 제일 먼저 웹진 이름을 '꿀값'으로 정하게 되었다. '꿀값'은 장애인을 비하하는 말로 많이 쓰이고 있다. 하지만 저마다 지닌 '꿀값'이 제대로 인정되기를 바라는 바람을 담아 역설적으로 사용하기로 한 것이다. 의외로 잡지 이름을 정하면서 우리는 쉽게 의견일치를 보았다. '꿀값'이라는 이름이 누구에게나 쉽게 기억될 수 있고, 발음하기에도 재미있다는 데 모두가 동의했기 때문인 듯하다. 이 이름에는 저마다 세상에 태어난 값을 하고 싶다는 바람과 저마다 한 꿀값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우리의 의지가 녹아 있다.

다음으로 장애인만 보는 잡지로 한정하지 말고 비장애인이 광범위하게 참여할 수 있는 웹진으로 만들어 보기로 논의하였다. 따라서 우리 웹진은 장애인이 만들고 비장애인이 보는 잡지,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벽을 허무는 잡지의 성격을 띠게 될 것이다. 목소리를 높이거나 한 목소리를 갖추어 일사불란하게 어떤 주장을 하기보다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의 이야기를 소중하게 여기는 인간미 넘치는 잡지로 꾸미려 한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벽을 허물기 위해서는 장애인들만의 공감대 형성에 그치지 말고 보편적인 인간애, 인권의 차원으로 확대해 나가야 하는 과제가 필연적으로 따르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소수자들이 참여해서 '사람 사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잡지'가 되기를 바란다. 하지만 이러한 지향점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많은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임은 물론이다.

'꿀값'은 장애인 당사자주의를 바탕으로 동료 간 상담방식을 최대한 활용해서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우리 꿀값지기들은 전문가주의를 반대한다. 하지만, 장애인의 인격을 존중하고 더불어 사는 삶을 위해 마음을 열어둔 모든 전문가들은 대환영이다. 다만 장애인 삶의 주인은 장애인 당사자이며, 장애인 삶의 중요한 결정은 장애인 스스로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자기결정의 원칙이 지켜지기를 바랄 뿐이다.

'꿀값'이 창간호를 내보낸 지 벌써 한 달이 넘었다. 그리 많지는 않지만 알음으로 찾아오거나 우연히 들른 방문객들이 저마다 개성있는 목소리로 잡지의 공간을 채워주고 있다. 장애인 웹진이라는 새로운 시도에 대한 반응은 지금까지 좋은 편이다. 우선 밝은 분위기가 좋고, 사람 냄새가 나서 좋다고들 한다. 하지만 정보량도 많이 부족하고, 무엇보다 현장감이 많이 떨어지는 것이 흠이다.

우리는 인터넷 전문가들이 아니다. 그래서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 배워서 우리 힘으로 이 공간을 만들었다. 처음부터 우리 꿀값지기들에게는 한계가 분명히 있음을 인정하였다. 그

가운데 '꿀값'의 주인은 꿀값지기들이 아니고 이용자들이라는 점을 늘 잊지 않으려고 했다. 앞으로 우리는 이용자 여러분들이 '꿀값'의 여백을 풍부하게 채워 나갈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일 생각이다.

고3을 앞두고 진로 문제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려준 은빛사과님. 가장 먼저 우리를 들뜨게 했던 분이다. 그밖에 날카로운 우먼님, 남기성님, 레오님, 영모님은 꿀값에서 새롭게 만난 소중한 분들이며 꿀값의 진정한 주인이다. 제2, 제3의 님들이 늘어나 차이가 차별로 이어지지 않는 세상, 다양성과 개성이 존중되는 세상을 앞당길 수 있기를 희망한다. 그래서 우리 꿀값지기들은 오늘도 '꿀값' 하고 있다!

* 장애인문화웹진 '꿀값'의 인터넷 주소는 www.ggolggad.com입니다.

장애여성문화공동체 극단 <끼판>

1. 창단배경

극단 <끼판>은 장애여성들이 주체가 되는 문화공동체로서, 비장애인 중심의 문화에 적극적으로 '끼어들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려 '관 벌이는' 문화를 형성해 가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다.

2. 연혁

<창단 준비과정>

- 2000. 6. 17. 하와이대 트리나 남미조 교수(심리학 Ph.D., 여성운동가) 초청
사회심리교육 WORKSHOP I 개최
'안성시 장애인 생활공동체 사람들과 함께' (장소: 죽산 '웃는돌' 캠프)
- 2000. 6. 22. 하와이대 트리나 교수 초청 사회심리교육 WORKSHOP II 개최
전문가 워크숍(장소: 연세대 내 상남경영원)

<창단 이후>

- 2000. 7. 25 극단 <끼판> 창단

2000. 8. 3 극단 <끼판> 창단공연 기획
 2000. 8. 12 창단공연 "몸짓 하나, 나는 나" 공개 오디션
 2000. 8. 16 극단 <끼판> 창단식
 2000. 8. 18 공연연습 시작

3. "몸짓 하나, 나는 나" 작품줄거리

1막 똑바로 변주곡 <마주침 / 겨울>

1장. 마네킹

마네킹이 진열장으로 팔려나가는 저녁 무렵의 마네킹 공장 수선실.

작업복을 입은 채 마네킹들을 분주하게 나르고 있는 바른이와 곧은이. 휠체어를 이동수단으로 마네킹을 운반하는 곧은이와 바른이. 마네킹의 이상상태를 점검한 뒤 마네킹들을 기계 부품 맞추듯 "똑바로, 폼나게" 중간관리자의 음성을 따라 작업을 하고 있다. 이들의 움직임 또한 마네킹처럼 보인다. 먼저 운반되어 온 두 세 개의 마네킹을 흠족한 표정으로 세워 진열한 바른이와 곧은이.

이어서 운반되어 온 삐딱이와 싱글이에게 관리자의 "불량" 선고가 내려진다. 힘없이 퇴장하는 곧은이와 달리 바른이는 싱글이에게 호감을 갖기 시작하고 싱글이 또한 바른이를 향해 은밀한 움직임을 보이며 따뜻한 눈길을 보낸다.

2장. 불량 변주곡

두 번째로 운반되어온 동글이 자매 역시 가차 없는 "불량"이 떨어진다. 마네킹들의 장애가 있는 곳을 일일이 수선을 하기 시작하는 바른이. 이와 달리 곧은이는 흰천으로 장애 마네킹들을 뒤집어 씌우고 묶어 놓은 채 나가버린다. 밧줄을 풀어주며 싱글이의 얼굴을 쓰다듬는 바른이.

2막 깨어남 <사춘기 / 가을>

침묵을 깨고 천 속에서 마네킹들이 꿈틀대기 시작한다. 천 밖으로 자유로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마네킹들 불만을 토한다. 여전히 고정된 채 웅크리고 있는 싱글이. 싱글이를 보며

서서히 풀이 죽는 마네킹들.

1장. 삐딱이의 꿈

어두운 분위기를 깨고 흥겨운 음악과 함께 춤을 추기 시작하는 삐딱이. 자신감 속에 남들처럼 연애와 결혼을 꿈꾸는 삐딱이를 첫째 동글이가 냉소적으로 놀려대고 풀이 죽은 삐딱이를 둘째 동글이가 위로한다. 이들을 신기하게 지켜보는 바른이. 우연히 장애가 있는 팔을 내보이게 된 싱글이는 놀러왔던 속마음을 고백하고 더욱 움츠러 든다. 노래를 통해 싱글이의 마음을 풀어주는 마네킹들.

2장. 싱글이의 꿈

다시 들어와 흐트러진 마네킹들을 정리한 바른이가 싱글이에게 다가온다. 몇 차례의 거부 끝에 바른이의 진심어린 손길을 받아들이는 싱글이. 다른 마네킹들의 격려와 우려 속에 두 사람은 사랑의 원을 만든다.

3막 충돌 <청년기 / 여름>

달콤한 분위기를 깨고 연장을 손에 든 곧은이가 들어온다. 마네킹들을 재배열하는 곧은이 앞에서 당황한 바른이는 곧은이를 저지하고, 자신을 거부하는 마네킹들의 움직임을 알아보지 못하는 곧은이는 "폐기처분" 받은 장애 마네킹들을 고치려 미친듯이 몸부림 친다. 불량품과 사랑이라도 하려는 거냐며 바른이를 비웃는 곧은이. 그 말에 바른이는 다시 한번 싱글이의 팔을 고쳐주려 몸부림 친다. 옆치락 뒤치락 하는 두 사람 앞에서 자신을 바꾸려 들지 말라고 마침내 소리치는 싱글이. 이때 가봉과 부목을 벗어던지며 움직이기 시작하는 마네킹들. 연장을 쥔 채 마네킹들을 붙잡아 세우려고 애쓰는 곧은이는 점점 장애인의 모습과 같아진다. 마네킹들 자신들의 열망이 담긴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고 한편에는 바른이의 갈등하는 몸짓과, 곧은이가 여전히 연장을 손에 쥔채 몸부림치는 모습이 또 하나의 장애인으로 보여진다. 언론의 왜곡에도 당당히 자유롭게 노래하는 장애여성들. 노래 중간에 갈등의 몸짓을 하는 바른이에게 다가가 손을 잡는 싱글이, 이끌려 오는 바른이 서서히 장애여성과 동화의 몸짓을 보인다. 여전히 멈추지 않고 기계적인 움직임을 하는 곧은이.

4막 아름다운 평화 <노년기 / 봄>

간헐던 천 속에 들어가서 춤을 추는 바론이와 싱글이, 삐딱이, 동글이 자매가 차례로 들어가 함께 춤을 춘다. 여전히 멈출 줄 모르는 곧은이의 기계적인 몸짓, 그에게 손을 내미는 천 속의 사람들. 그들에게 빨려 들어가는 곧은이, 평화로워지는 곧은이의 얼굴. 드디어 하나가 되어 춤을 추는 사람들. 간헐던 천이 하나의 커다란 옷으로 어우러져 모두가 아름다운 사람들.

4. 공연일정

11월 22일(수) 오후 7시 일산직업전문학교 대강당
 11월 24일(금) 오후 6시 정립회관 대강당
 11월 28일(화) 오후 1시 30분 은평천사원 내 은평복지학교
 11월 29일(수) 오후 7시 하자센터(서울특별시립청소년직업체험센터)

5. 구성

제작 : 김미연(35, 극단 끼판 대표, 장애여성인권센터 소장)
 총괄기획 : 박상욱(35, 문화활동가, 문화개혁시민연대 시민자치문화센터 사무국장)
 기획 : 지영관 외 독립예술제
 박영산(29, 장애여성인권센터 기획정보팀장)
 연출 : 이정미(39, 민중극단 소속, 현 광명시청 뮤지컬 <년센스> 연출)
 극작 : 박인혜(36, '백번 죽는 여자' 외 다수 극작)
 무대·소품 : 박미영(34, 무대미술아카데미 졸업)
 음악 : 이원경(33, 작곡가)
 의상 : 김은영(28, '마르고 닳도록' 의상)

6. 출연자

(1) 장애여성배우

용태숙(31, 영어관리교사, 장애여성) : 내 자신의 장애를 정면으로 보고 싶습니다.
 이미경(32, 사랑의 전화 자원상담활동가, 장애여성) : 나를 좀더 자연스럽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김지혜(23, 장신대 3년, 장애여성) : 다양한 경험을 해보고 싶습니다.”

강은진(21, 한양대 2년, 장애여성) : 새로운 일에 도전해 보고 싶습니다.”

(2) 일반배우

정효인(27, '세자매' 외 다수 출연)

이성노(33, '오드리' 외 다수 출연)

〈기사〉

장애인의 몸짓은 아름다워라!

2000년 12월 7일 한겨레21



“뚝바로! 폼나게!” 굵고 무서운 목소리는 팔이 굵고 다리를 못 펴는 마네킹들을 자꾸 수직으로 세우도록 한다. 마네킹을 손보던 바른이와 곧은이는 목소리에 기겁을 해서 돌지만 잘 되지 않는다. 얼추 비슷하게 세우자 불호령이 떨어진다. “불량!”

바른이는 일일이 수선하려 하지만, 곧은이는 장애 마네킹들을 흰 천으로 씌워 묶어 놓은 채 나간다. 기계부품처럼 억지로 모습을 바꿔야 하는 삐딱이와 싱글이, 동글이 자

매 마네킹은 드디어 분통을 터뜨린다. 이들이 의인화하는 순간은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기 시작하는 순간이다. 삐딱이는 멋지게 춤추고 노래 부를 줄 알고, 싱글이는 바른이와 사랑에 빠지게 되고, 동글이 자매는 툭 하면 까르르 웃음보를 터뜨리는 장난꾸러기이다.

11월 24일 서울 광진구 정립회관 대강당에서 열린 〈몸짓하나, 나는 나〉(박인혜 극본·이정미 연출)는 장애여성인권센터(소장 김미연)가 만든 극단 끼판의 창단공연이다. 끼판은 장애여성들이 비장애인 중심의 문화에 적극적으로 ‘끼어들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려 ‘판을 벌이는’ 문화를 만들어 가자는 포부를 갖고 있다. 그래서 비장애인 중심 사

회의 현실을 진지하고 발랄하게 풍자하는 첫 공연으로 막을 올렸다. 비록 완벽하고 매끄럽지는 않았지만 소박하고 뜨거운 연기를 펼친 이미경(32, 자원상담가), 용태숙(31, 영어관 리교사), 김지혜(23, 장신대3년), 강은진(21, 한양대2년)씨는 지난 8월 오디션을 통과해 첫 발을 내디딘 아마추어 배우들이다. 모두 장애여성들인 이들은 석달가량의 연습기간 동안 몸무게가 3~5kg씩 빠질 정도로 구슬땀을 흘리며 공연에 몰두해 왔다. 평범한 삶을 살아 오던 이들이 배우로 변신한 이유는 “자신의 장애를 정면으로 보고”(용태숙), “그런 자신을 자연스럽게 표현하고 싶어서”(이미경)였다. 곧게 서기만을 강요하는 목소리에 따르지 않는 이들의 몸짓은 다름과 차이를 인정하지 않고 규격화된 외형만을 강요하는 현실에 대한 저항이기도 하다. 이들이 입을 모아 외치는 대사는 “내 모습 눈부시도록 충분히 아름다워!”

굳이 이 대사가 아니라도 그들의 몸짓은 충분히 빛나고 아름다웠다. 장애가, 장애를 끌어안는 태도가 인간의 삶을 얼마나 성숙하고 풍부하게 하는지 역설적으로 증명하는 몸짓이기도 하다.

김소희 기자

〈몸짓 하나, 나는 나〉 창단공연을 끝내고

문화를 통한 장애여성의 자리찾기

김미연 / 극단 끼판 대표

〈몸짓 하나, 나는 나〉는 대통령직속여성특별위원회의 '2000년 여성발전기금'의 지원을 받아 장애를 가진 여성들이 자신의 목소리로 자신의 이야기의 장을 마련해 보고자 장애여성인권센터가 극단 끼판의 이름으로 지난 한 해 진행했던 문화공연사업이다.

“무대에 서보는 꿈 꿀 기회조차 없었는데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왔어요.” 오디션 공고를 내고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참가자를 기다리던 우리에게 한 장애여성이 오디션에서 한 말이다. 바로, 장애여성이 ‘꿈 꿀 기회’ 뿐만 아니라 ‘무대에 서 보는’ 현실을 만들기 위해 도전장을 내민 것이 이 사업이었다.

이 공연사업을 수행해 가면서 먼저, 장애여성인 우리는 자기 자신부터 만났다. 나는 누구인가, 장애여성은 누구인가. 그리고 과연 나는 그 장애여성인가.

“장애여성의 목소리와 몸으로 장애여성의 이야기를 하자”라는 이번 퍼포먼스 제작은 내용을 정리해내는 것부터가 힘겨운 작업이었다. 편견과 왜곡으로 인해 정지되어 있는 무성(無性)의 몸으로 규정되는 장애여성의 정체성, 그 현실을 새삼 직면해야 했고 인정해야 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내용으로 소화해야 했다.

그러나 공연을 올리기 위한 본격적인 어려움은 제작과정의 내부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정작 무대는 장애배우의 ‘장애’를 고려하지 않고 디자인되고 제작되어 갔다. 의상도 치수를 재고 재단을 하는 과정에서 장애여성배우와 의사소통 없이 진행되었다. 안무조차 장애를 가진 몸을 고려한 훈련 없이 진행되었다. 이는 이러한 작업을 하는 스태프들이 장애인을 개인적으로 만나보거나 무대제작, 안무, 의상디자인 과정 등에서 장애를 가진 배우들을 고

려한 작업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장애는 언제나 무대와 영상 속에서 누군가에 의해 이른바, 정상적인 몸을 가진 배우들에 의해 연기되어지는 것으로 정작 실제적으로 장애를 가진 배우가 무대를 서는 일은 없었기 때문이다. 결국, 장애여성에 대한 인식개선 작업은 우리 자체의 퍼포먼스 제작과정에서 시작되었던 것이다.

무엇보다도 가장 어려웠던 일은 장애인들이 편리하고 자유롭게 공연을 준비하고 공연을 볼 수 있는 공연장을 얻는 일이었다. 연습장과 마찬가지로 공연장도 휠체어가 들어 갈 수 있는 엘리베이터와 경사로가 설치되어 있고 화장실이 편리한 곳을 찾는 것은 쉽지 않았다. 일반적인 관객의 범주에는 이미 장애가 있는 관객은 기대되고 있지 않으며 더군다나 문화의 주체적인 역할에서는 전혀 그 예를 찾아보기 힘든 것이 우리 문화의 현주소였던 것이다.

그러나 이 공연사업을 통해 장애를 가진 여성들이 과감하게 문화영역에 퍼포먼스와 영상물을 통해 자신들의 이야기를 우리 사회에 전달하고 드러내기를 시작할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다. 이 과정을 통해 단순히 사회적으로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장애여성 인식개선을 위한 사회교육 프로그램의 성과물뿐만 아니라 정식으로 장애여성이 무대에 서보는 계기를 마련하여 그 과정 자체가 장애를 당당하게 받아들이는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이는 장애여성들의 자아 정체성 찾기의 과정이었으며 자신과 삶에 대해 성취감을 가질 수 있는 과정이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장애여성들의 도전은 사회적으로 장애여성의 문화영역을 통해 새로운 인권증진, 인식개선의 계기, 그리고 나아가 우리 사회에 왜 관객과 공연의 주체로서 장애인, 혹은 장애여성들이 존재하지 않은 것인가 반문해 보는 계기가 되었다.

“문화를 통한 장애여성의 자리찾기.” 이 화두는 2001년에도 우리의 활동에 매우 중요한 중심이 될 것 같다.

이문열 소설 『아가(雅歌)』 비평

첫번째, 이문열은 글을 잘 쓴다. 그는 글을 재미있게 쓸 줄 안다. 그의 책은 빨리 읽을 수 있다. 말 그대로 독자를 책에 빠져들도록 만든다. 그의 묘사는 독특하고 좀 진부한 표현이지만-참신하다. 그의 소설에서 단어는 적절한 곳에 알맞게 배치되어 있다. 글을 쓸 때 단어 하나하나에 신경을 쓰고 있다는 느낌을 들게 하는 몇 안 되는 작가이다.

두번째, 이문열은 베스트셀러 작가이고 인기작가이다. 그가 평역한 삼국지는 천만부 이상 팔렸고 지금도 팔려나가고 있다. 내는 책마다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기본적으로 이삼십만 부는 팔린다. 그는 아직도 대학생들이 가장 좋아하는 작가후보 일순위이며 이름만으로 주목받는 작가 중의 한 명이다.

그리고 마지막, 세번째, 나는 이문열이 싫다. 말도 안 되는 논리를 말이 되는 것처럼 쓰고 믿게 하는 그의 교활한 글솜씨가 싫다. 작가로서 너무 높은 자리에 올라 자신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하기 때문에 자신을 비판하는 사람들을 '선동하기 좋아하는 언론'이라거나 '얼치기 논평가' 라고 표현하고, 자신과 논쟁을 하려는 젊은 작가들을 두고 '고수와 상대해서 튀어보려는 검사(劍士)와 같다'고 말하는 그의 오만함이 싫다. 그리고 책이 나올 때마다 대대적으로 선전해주고 찬양에 가까운 기사를 실어주는 조선일보에 기고할 때 '조선일보에 기고하게 되어 영광이다' 라는 감사의 말을 빼놓지 않는 그의 마음 씀씀이가 싫다.

이제까지 읽은 그의 책들은 모두 네 편밖에 되지 않는다. 그런 내가 이문열의 책을 비평한다는 건 정말 실례가 되는 일이고 말도 안 되는 일이며, 내게도 자신없는 일이기도 하다. 하지만 내가 이문열을 싫어하기 때문에 서점에서 주저주저하면서 고른 책이 바로 이문열

의 『아가』이다.

이문열의 전작 『선택』은 반(反)페미니즘 소설이라는 비난을 받았다. 여기저기에 지식인들 간의 논쟁이 일었다. 그리고 3년 후 『아가』를 써냈다. 내가 이 책의 평가에 대해 기억하는 건 이 책이 이문열식 반페미니즘 소설의 완성으로 많은 비난을 샀다는 것이다. 하지만 나는 페미니즘이라는 것에 대해 논쟁을 벌일 만큼 자세히 알지도 못 할 뿐더러, 내 생각으로는 간간히 중간중간 읽어본 전작 『선택』의 구절들보다는 그 느낌은 훨씬 덜하다. 이문열이 이 소설에 반페미니즘적 요소를 담으려고 의도했었다면 문제는 그걸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내게 있을 것이다. 이런 날보고 반페미니스트라고 하는 사람은 없겠지만.

하지만 내게 있어 『아가』의 문제점은 이문열이 소설을 통해 무슨 말을 하려는건지 모르겠다는 것이다. 확실히 텍스트의 이해력과 분석력이 부족한 탓이기도 할 것이지만 끝까지 읽고 난 후에도 어리둥절할 뿐이었다. 반전에 반전을 거듭한 영화 한 편을 본 듯한 기분이랄까. 다른 점은 영화를 본 후에는 통쾌하고 놀랍지만 '아가'를 읽고 난 후에는 영 찝찝하다는 것이다.

이 소설의 화자인 '우리'는 어렸을 적 보고 들었던 '당편'이라는 장애인—정말 고민고민해서 고른 단어이다. 그녀를 뭐라고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다—애기를 하고 있다. 50년대 그녀가 처음으로 등장해 녹동대에 들어갔을 때부터 90년대 장애인 수용소에 들어갈 때까지의 그녀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당편.' 그렇다. 소설의 주인공인 그녀는 장애여성이다. 어릴 적 소아마비를 앓아서 걸음걸이가 부자연스럽고 행동도 자유스럽지 못하다. 정신적인 지체도 겪고 있다. 장애인. 스스로 정상이라고 믿는 '보통사람들'에게 장애인들은 어떻게 비취지고 있을까. 작가는 소설의 시작에서 오래 전에 그들은 삶의 일부였다고 말한다. 누구도 그들이 격리되어야 한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다고 말한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그들은 우리 곁에서 하나 둘 사라졌다. 정신병원과 각종 수용소, 재활원, 보호소 같은 시설들이 그들 중 생산 능력이 없으면서 사회의 미관(美觀)과 편의만 해치는 이들을 먼저 골라 데려갔다…… 남은 사람들은 남은 사람들대로 예전의 환유(換喻)를 거부하였다…… 그들 환유의 특성이 우리 삶에 끼치는 여러 불편이나 혼란을 웃음으로 참아 넘긴 것도 어찌면 그게 우리가 그들에게 해 주어야 할 당연한 보상이었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아가 中

작가는 그들을 그리워하는 걸까. 그들에게서 참된 삶의 의미, 혹은 즐거움을 찾으려는

결까, 그들을 보고 용기를 얻으라고 하는 것 같기는 하다. 그런 그들도 사는데 보통사람인 우리들도 살아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그녀를 보고 삶의 용기를 얻었다는 올순이의 대사가 그것을 증명하는 듯하다. 그녀는 결국 난산(難産)으로 죽고 말았지만— 아니면 너무 전문화되어버린 매정한 요즘 세상을 비판하려는 것일까. 어쨌든 작가는 그들을 감싸 안으려고 하는 것 같았다. 하지만 그 같은 나의 생각은 '당편'으로 대표되는 장애인들에 대한 지나친 희화화에 무너지고 말았다. 당편의 걷는 모습에 대한 묘사라든지 그녀가 밥을 먹는 모습을 개가 개밥을 먹는 듯하다고 표현한 것 외에도 수많은, 너무나도 '웃긴' 묘사들은 당편 즉 장애인을 웃음거리로 만들었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는다. 그뿐만이 아니라 작가는 그녀의 행동거지를 농담으로 만들어 소설 속의 사람들에게 퍼뜨려 놓았다. 스스로도 말한다.

그녀에 대한 농담 책을 두 권 분량으로 만들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이다. 좋다. 이것은 어쨌든 화자인 '우리'가 느낀 그대로 말하는 솔직한 묘사일 것이다라고 생각해 두자. 아직 작가는 장애인들을 감싸안는 위치에 있다. 하지만 진심으로 그런지는 계속 의문이 생긴다. 작가는 '수용소'라는 장애인들을 집단으로 담아놓는 곳을 비판했다. 그 곳에 한 번 들어갔다가 도망쳐 나온 당편을 통해서였다. 당편의 말로는 그들은 그녀를 구타했고 굶겼다. 여기서 문제는 그 '수용소'라는 곳이다. 과연 그곳만이 '수용소'였을까. 그녀가 처음 녹동택에 자리를 잡았을 때 자신이 찾아간 곳은 외양간의 짙이 쌓인 빈 공간이었다. 그리고 녹동택이 몰락한 후 자리잡게 된 술도가에서도 그녀는 '스스로' '보통사람들'과는 다른 자신만의 공간에서 잠을 청한다. 술도가 몰락 후 수용소로 갔다가 다시 돌아왔을 때도 그녀가 들어간 곳은 마을중심에서 떨어진 향군회관이였다. 작가는 이런 식으로 당편이를 의도적으로 '보통사람들'과는 떼어놓는다. 그것도 주인공인 그녀가 '스스로' 한 일로 만들면서 말이다. 의미상으로는 외양간이나 향군회관이나 수용소는 다를 게 없는 곳이다. '보통사람들'과는 떨어진 곳. 다른 점은 수용소는 강제적이지만 외양간, 향군회관은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공간이라는 것이다. 이로써 작가는 우리 보통사람들에겐 책임이 없다고 말하려는 듯하다. 모든 것은 당편 즉 장애인 그들 스스로의 떨어져 있으려는 생각 때문이라고 하는 것 같다. 그리고 그녀는 결국 스스로 '수용소'로 들어가 버리지 않는가?

이게 끝인가. 아니, 그것도 아니다. 맨 마지막에 '우리'가 모였을 때 당편을 그리워한다. 그녀를 위해 슬픈 시까지 읊어 보인다. 작가는 다시 당편을 삶의 일부로 끌어들이려는 것인가. 아, 이제야 알 것 같다. 작가는 그렇게 함으로써 확실하게 그녀를 수용소로 '보낼 수 밖에 없었던' 보통사람들을 합리화한다. 이 얼마나 멋진 일인가. 그녀는 '스스로' 수용소로 '보내어졌고', '보통사람들'은 이 정상적 삶의 울타리 안에서 그녀를 '그리워하는' 것

이다. 정말 이문열은 대단한 작가이다.

이제 약간 시선을 옮겨 보자. 이 소설을 반페미니즘 소설이라고 주장한 사람들의 시선으로. 위에서 말했듯이 이 소설에서 반페미니즘적 느낌은 전작 『선택』보다는 훨씬 덜하다. 하지만 정말로 그럴까. 그런 느낌이 덜 나도록 포장해 놓은 게 아닐까. 우선 소설에는 당편의 여성성에 대한 작은 사건이 있다. 그녀가 녹동택에 머물 무렵 밖에 나갔다가 어느 총각에게 모욕을 당했다. 겁탈당했다는 뜻이 아니다. 원래 그런 의도로 접근했던 총각이 그녀를 가까이서 보고 질색하고 정말 여자가 맞나 나무 막대기로 그녀의 옷을 헤쳐보고 나무막대기로 국부를 살살 건드려 본 일이다. 당편은 서럽게 울고 다행이 같은 녹동택의 하인의 도움으로 일을 잘 마무리한다. 작가는 당편의 눈물을 다음과 같이 해석한다.

……그녀에게는 미안한 추측이지만 혹 그것은 낯선 총각에게 보일 것 안 보일 것 다 보여버린 처녀의 원통함이나 모욕감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자신이 여인임을 알아보고 다가와 놓고도 끝내 마다하고 돌아서 버린 이성에게 느낀 야속함 때문은 아니었을까.

— 아가 中

그리고, 작가는 소설에서 여성의 기능의 첫번째를 '생산의 기능'을 꼽는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당편에게는 그런 '기본적인 기능'인 생산의 기능이 없다. 그녀는 여러 소일거리를 하는 기술적 기능만을 가지고 있고 성적으로도 쾌감을 느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녀는 소설 속에서 진정으로 장애인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제 결론으로 가보자. 웬지 너무 일을 크게 벌려놨다가 급하게 수습하는 느낌이 없지 않으나 어쩔 수 없다. 어쨌든 제목 『아가(雅歌)』는 당편을 위한 사랑의 노래였다. 당편에 대한 '고고한 동정'과 '애정'은 구약성서의 그것과 비교할 수 있을 정도로 성스러운 것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사람들'인 우리로서는 당편보다 훨씬 우월한 위치에 자리잡을 수 있게 되고 소설 밖에서의 우리 역시도 그러한 위치에 놓이게 되는 것이다.

작가의 말에서 이문열은 말했다. 이 작품을 쓰기 시작할 때 자신을 사로잡은 것은 변화의 열정이었다고 말이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는 변화하지 않았다. 아니, 취소한다. 그는 변화했다. 그의 속마음을 더 우회적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글솜씨가 더 늘었다. 하지만 그는 발전하지 않았다. 『선택』으로 많은 논쟁에 휩쓸렸던 일을 '괴이쩍은 질풍노도'로 '실로 소모이고 낭비'라고 밖에 표현할 수 없는 그가 그동안 무슨 발전을 했겠는가

설문조사

제 2강 <임신, 출산 그리고 양육>에 대한 결과

1. 이번 강의가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의 질문에 74%가 도움이 되었다고 대답 해주셨고, 13%가 매우 도움이 되었다, 13%가 그저 그렇다의 의견이었다.
2. 강의 내용 중 어느 내용이 가장 좋았습니까?의 질문에 67%가 '김진옥의 결혼이야기' 프로그램이라는 대답이었고, 27%는 '임신, 출산 그리고 양육' 프로그램, 6%가 '열린 장애엄마모임' 과 '함께 하는 경험나누기' 프로그램의 대답이었다.
3. 제1강 '이제는 우리의 목소리로' 를 참석하셨습니다? 라는 질문에 67%가 참석하지 못했다는 대답이었고, 33%는 참석했다는 대답이었다.
4. 다음 주 내용 — '장애여성의 사랑과 결혼' 에 참가되었으면 하는 것은? 의 질문에 좀 더 재미있게 진행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 더욱 알찬 내용의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많은 정보제공, 결혼 후 이혼상태로 청계천에서 노점상경영을 하고 자살경험이 있는 최옥란씨의 경험담을 이야기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다.

제4강 <장애여성, 가족문화캠프>에 대한 결과

1. '내 몸과의 만남' 의 강의내용이 어떠하셨습니다? 란 질문에 62.5%가 매우 좋았다 라는 대답이었고, 37.5%가 좋았다라는 대답이었다. 이유로는 자신을 바라볼 수 있고, 이를 계기로 자신을 사랑하고 아끼게 되어서란 의견과, 평소에 해보지 못한 새로운 경험이었으며, 스스로를 발견하는 기회가 되었다. 또 운동의 좋은 기회가 되었다.
2. <MBTI 성격유형 검사> 의 강의 내용이 어떠하셨습니다?라는 질문에 75%가 매우 좋았다라는 대답이었고, 25%가 좋았다라는 대답이었다. 이유는 자신의 성격유형을 파악함으로 자신을 폭넓게 이해하고 다른 사람들의 성격유형을 앞으로 타인에 대한 이해의 폭도 넓히는 계기가 되었다의 의견과, 주위에 나오는 성격상 맞지 않는 이들에 대해서도 비난보다는 그 사람의 성향을 생각하고 이해하는 쪽으로 좀 바뀐 것 같다. 또, 자신의 성격에 보완점을 느낄 수 있어서 좋았고, 그룹토론을 하지 못한 것이 아쉽다라는 의견이었다.
3. <MBTI 성격유형 검사> 결과 자신과 맞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75%가 맞다라는 대답이었고, 25%가 매우 맞다, 0%의 좋지않았다라는 대답이었다.
4. '장애여성, 가족문화캠프' 의 프로그램 중 어느 내용이 가장 좋았습니까?라는 질문에 75%가 <MBTI 성격유형 검사>라는 대답이 나왔고, 12.5%가 내 몸과의 만남(기체조) 이었고, 12.5%가 모든 프로그램이 좋았다의 의견이었다. 이유로는 자신을 객관적으로 알 수 있어서 성격유형검사가 좋았다란 의견과 '내 몸과의 만남' 프로그램과 '놀이로 사귀기' 의 프로그램은 비장애인과의 어울리기 부담스러운 부분이었는데 편한 분위기여서 참 좋았다.
5. '장애여성, 가족문화캠프' 의 프로그램 시간들은 어떠하셨습니다?라는 질문에 62.5%로 적절했다 라고 대답했고, 25%로 짧았다, 12.5%로 길었다라는 대답이었다.
6. '장애여성, 가족문화캠프' 에서 장애유형이 달라서 혹은 장애정도가 심해 프로그램에서 소외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75%가 그렇지 않았다는 대답이었고, 25%가 그저 그렇다라는 대답이었다.

7. '장애여성, 가족문화캠프'의 장소였던 현대성우리조트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87.5%가 좋았다고 대답했고, 12.5%가 매우 좋았다는 대답이었다.
이유는 엘리베이터가 가까이 있어 이동하기 편리했고, 깔끔해서 좋았다는 의견과 편
리하고 레크레이션센터가 있어서 좋았다는 의견이 있었다.
8. 제2기 장애여성 DPI아카데미 중 어떤 강의에 참석하셨습니다? 란 질문에 50%가 '장
애여성, 가족문화캠프'가 처음이라고 대답하였고, 37.5%가 4회 강의에 다 참여했다,
12.5%가 3회 강의에 다 참여했다라는 대답이었다.
9. '장애여성, 가족문화캠프'에 참석하면서 얻은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란 질
문에 40%가 알지 못했던 정보수집, 40%가 다른 사람과의 만남, 20%가 자신감이란
대답이었다.

편 집 후 기

세상에 유일한 미신이 있다면 양과 수치로서 인간의 삶을 저울질하고 평가하는 것일 것이다. 서울
DPI 장애여성 아카데미를 통해서 많은 여성들을 만났다. 한결같이 진지하게 자기 삶을 꾸려나가고
있거나, 앞으로 꾸려나가고자 하는 여성들이었다. 사회의 문이 활짝 열려져서 앞으로는 그런 다양
한 삶의 방식이 좀더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지기를 아울러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주체들이기도 하다.

김미선

“함께 모여 우리의 목소리로 이야기합시다.”

우리가 만들어 내걸었던 이 슬로건을 다시 생각해 본다.

지난 1년, 아카데미 1, 2기를 지나면서 과연 '장애여성'이란 화두는 내게, 우리에게 그리고 우리 사
회에게 무슨 의미인가. 솔직히 절실하게, 그러나 어떤 때에는 습관적으로 고민했던 화두였다고 고
백한다.

내가 장애여성이라면, 우리가 장애여성이라면, 우리 사회의 장애여성은 우리들 안에서 풀어내는 매
듭에서부터 그 실마리가 있을 것이라고 지금, 2기 자료집을 내면서 생각해 본다. 김미연

처음 '만남'은 낯설었다. 나와 다르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두 번째 대하기가 어려웠다. 어떻게 도
와줘야 할까해서... 지금은 편안하다. 나와 다르지 않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익숙해진다는 것, 바로
편견을 갖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 이제정

세상에 태어나서 항상 '첫경험'은 낯설다. 그러나, 그 후로는 무언가 익숙해지게 된다. '장애여성'
이제 낯설지 않고 내 친구라는 것을 알겠다. 이지은

비장애인이든 장애인이든 정말 똑같다는 걸. 자아를 극복하기 위해선 열심히 뛰어서 노력해야 한다
는 걸. 또, 비장애인과 장애인 - 우리는 친구같이 어울릴 존재라는 걸. 김연주

바쁜 시간 틈을 내어 함께 하신 스텝 여러분 각자 다른 일을 하지만, 같은 공간에서 함께 공유할 수
있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가는 시간 즐거웠습니다. 행복하시고, 사랑합니다. 김미정

이제는 우리의 목소리로

발행일 / 2001년 1월 30일

발행인 / 최 민

편집인 / 서울DPI 여성특별위원회

주소 / 서울시 광진구 구의동 16-3

전화 / 02-447-0277

편집디자인 / 출판기획 명작 (02-2264-7538)

이 자료집은 서울특별시 '2000년도 장애인 복지기금' 지원사업으로
제작되었습니다.